

## 호랑이 퇴치담의 신화성과 여성주의적 접근\*

- ‘음란한 짓으로 맹수 놀라 도망가게 하기’ 유형을  
중심으로

이 현 주\*\*

차 례

- |                   |                              |
|-------------------|------------------------------|
| 1. 들어가며           | 4. 가부장적 텍스트에 대한 여성주의<br>적 읽기 |
| 2. 자료 검토 및 분류     | 5. 나가며                       |
| 3. 설화에 나타난 신화적 맥락 |                              |

국문초록

‘음란한 짓으로 맹수 놀라 도망가게 하기(336-4)’ 유형은 평범한 남자 혹은 여자가 옷을 벗고 성기를 내보여 호랑이를 속여 쫓았다는 줄거리를 지닌 설화이다. 이 논문은 이 유형을 대상으로 민속학·인류학적 관점과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성기 화소와 인물의 행위를 중심으로 설화에 나타난 신화적 맥락과 가부장제 사회의 젠더 주체가 구성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을 위한 첫 번째 작업으로 유화(variant) 목록을 정리하여 서사구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B5A17089940)

\*\* 부경대학교 강사

조를 분석하고 유형을 분류하였다. 그리하여 모티프(motifeme)의 배열과 호랑이 퇴치 주체를 고려하여 자력형(自力型), 협력형(協力型), 모방형(模倣型)으로 하위유형을 세분화하였다. 자력형은 다시 남성담과 여성담으로 나뉜다.

두 번째는 이 설화가 성기 숭배 신앙과 창세신화, 영웅신화, 무속신화 등에 나타난 다양한 신화적 요소들을 반영하여 생성된 것으로 보고 인물의 속성과 서사구조를 중심으로 신화와 공유하는 특성을 살펴보았다. 가장 활발히 전승되는 여성담을 중심으로 살핀 결과, 호랑이를 퇴치한 여성은 신화 주인공처럼 속임수와 변신의 술수를 부릴 줄 아는 인물로서 자신의 몸(성기)에 깃든 생명력으로 사회를 재생시키는 여신적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여성이 호랑이를 퇴치하는 과정을 영웅적 인물의 통과의례(입문의례)로 보았으며 바리데기와 당금애기 등 여성영웅의 통과의례에 나타나는 희생적 성격도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여기서의 호랑이는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는 존재로 안정된 질서의 재편을 위해 퇴치되어야만 하는 ‘부정(不淨)’의 의미를 지닌다.

세 번째는 하위유형의 서사를 검토하여,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담지하는 이 설화의 주체 구성 방식에 주목하였다. 먼저 성기를 중심으로 차별적으로 구성되는 남/녀의 서사를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호명(interpellation)에 따른 남성과 여성의 주체화(subjectivation) 과정으로 전제하였다. 이때 주체화 과정에 개입하는 호랑이는 주체를 호명하는 ‘권력’이자 ‘가부장적인 팔루스(phallus)’가 된다. 분석 결과,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속 남성과 여성 주체들은 호명과 구별짓기, 남성주체화와 여성 혐오, 표준과 비표준의 경계짓기라는 틀(전략)에 따라 남성지배 체제 유지에 적합한 몸으로서 생산되고 있었다. 이러한 젠더화 방식은 생물학적 본질론과 성차별, 남성 보편주의에 의거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설화를 음담, 우스갯소리로 즐기면서 설화에 전제되어 있는 젠더 관념이나 여성 혐오의 논리를 자연화한다는 것이다. 무비

판적이고 무의식적인 연행은 여성 억압과 여성 종속을 정당화하는 담론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남성지배 이데올로기를 관철하는 헤게모니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이 설화를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읽어야 하는 핵심적 이유이다.

이 논문은 그간 학계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이 유형을 연구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자료를 확장하고 새로운 독법을 시도하였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성(性), 신화, 성(聖), 세속화, 가부장제, 젠더, 주체화, 팔루스, 여성혐오, 여성주의

## 1. 들어가며

‘음란한 짓으로 맹수 놀라 도망가게 하기’유형은 호랑이 퇴치담에 속하는 이야기이다. ‘음란한 짓’, 즉 성기(性器) 드러내기가 주요 화소로 등장하며 평범한 남자 혹은 여자가 옷을 벗고 성기<sup>1)</sup>를 내보여 호랑이를 속여 쫓았다는 서사적 줄거리를 지닌다.

이 유형은 『한국구전설화집』, 『한국구비문학대계(이하 대계)』 등 기존의 설화자료집을 통해 전국적 전승양상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근래의 설화 채록 현장에서도 자주 연행되는 전승력 강한 이야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의 호랑이담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면, 이 유형에 대한 개별 연구 성과가 아직 확인되지 않으며 호랑이담의 전체적 양상을 다룬 논의에서도 이 유형을 아예 다루지 않은 경우도 있다.<sup>2)</sup> 김명희

1) 여성의 경우 성기 노출과 함께 월경 상태를 드러내기도 한다.

2) 호랑이담 연구는 주로 자료를 수집하고 유형화하여 분류한 것이 대부분이다. 연구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어리석은 호랑이, 은혜 갚은 호랑이, 신령스러운 호랑이, 사나운 호랑이, 변신하는 호랑이 등 구비문학대계의 분류체계를 기본 골격

와 배도식<sup>3)</sup>에 의해 일부 자료가 소개되었지만 두 연구자는 호랑이를 중심으로 호랑이 캐릭터 분석에만 주목하여 이 설화를 다루었기 때문에 다른 인물들의 캐릭터나 행위,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 설화의 전승력을 담보하는 핵심 화소에 해당하는 성기의 역할이나 의미, 연행 층위에서 나타나는 전승자들의 의식 등에 대한 고찰을 간과한 결과, 어리석은 호랑이를 조롱하기 위해 웃기려고 만든 이야기라는 피상적 분석에 머무르고 말았다는 한계를 지닌다. 한편의 설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설화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여러 구성 요소들을 다각도로 살펴야 할 것이다.

실제 이 이야기가 연행되는 현장은 웃음소리로 떠들썩하다. 이때 웃음은 생사불명의 위기 상황에서 성기를 드러내는 의외성과 성기를 두려운 것으로 인식한 호랑이의 어리석음, 호랑이를 퇴치한 통쾌함 등에서 발생한다. 여기서 드는 의문은 호랑이 퇴치 수단이 ‘왜 성기인가?’라는 것이다. 평범한 인간이 맹수인 호랑이를 퇴치하는 이야기는 아주 많다. 퇴치 방법과 퇴치 도구도 각양각색이다. 그런데도 왜 성기가 등장하는 것일까? 성기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또 향유자의 의식과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이 논문은 이러한 의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민속학·인류학적 관점과 여성주의적 관점을 원용하여 텍스트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우선 성기가 호랑이를 쫓는 위력을 지녔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호랑이가 인간의 성기를 무서워한다는 것은 실제 호랑이의 습성과 무관하고<sup>4)</sup>, 무방비 상태의 인간이 홀로 성기로 호랑이를 대적하

으로 이를 적용하고 있다.(배도식, 『한국 호설화 연구』, 동아대 박사논문, 1999. 허원기, 『한국 호랑이 이야기의 현황과 유형』, 『동화와변역』 5, 건국대학교 동화번역연구소, 2003. 허춘, 『설화에 나타난 호랑이의 특성』, 『열상고전연구』 10, 열상고전연구회, 1997. 장덕순, 『한국설화문학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78.)

3) 김명희, 『설화 속에 나타난 호랑이와 여성』, 『동방학』 2,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1996. 160-162쪽. 배도식, 앞의 논문, 57쪽.

4) 호랑이가 알몸인 사람을 보고 먹기 수월하여 좋아 웃었다는 설화에서 알몸과 성

여 이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서사층위에서나 연행층위에서나 아무도 이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지 않고, 이야기 속 주체들은 호랑이 퇴치를 위해 준비된 비법처럼 성기를 내보인다. 대부분의 각편에서 호랑이는 성기를 두려워하여 달아나거나 죽게 되는데 이같은 비현실성은 이 설화를 축어적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상징으로 해석해야함을 말해준다. 이 설화에서 성기를 드러내는 행위는 성적 흥취를 돋우기 위한 음란 행위가 아니라 호랑이에 의해 야기된 혼란과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몸짓이다. 신화나 의례가 카오스를 코스모스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 몸짓은 개인과 공동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대상을 제거하여 사회의 안정과 재생을 꾀하고자 하는 의례적 몸짓으로 이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몸짓의 결과로서 결핍이 완전히 해소됨은 성기가 지닌 신화적 이미지를 환기하도록 한다.

프롭(V.Propp)은 러시아 민담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민담이 발생적으로 원시 사회의 제의 및 사고 개념과 연관됨을 검증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야기는 어떤 상징적 관행들—신화적 이야기, 제의, 민간 신앙 등 고대 종교를 구성하는 모든 것—과의 친화력을 지니며, 제의와 그 해설 그리고 그것들을 포괄하는 신앙이 각기 분리되는 시점에서 이야기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야기는 마지막 신화들 곁에서 그 모티프들 중 몇 가지를 활용하고 사라진 관행이나 제의적 연출을 참조하여 생겨날 수도 있고 심지어 종교적 신앙 체계의 만기된 상태의 유일한 증빙이 되기도 한다고 하였다.<sup>5)</sup>

이 논문에서는 프롭의 견해에 기대어 이 유형이 성기 숭배 신앙과 창세신화, 영웅신화, 무속신화 등에 나타난 다양한 신화적 요소를 토대로 생성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추론해보려 한다. 유화들(variant)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성력(聖力)을 발휘하는 성기 화소와 속임수(tric) 화소,

기에 대한 호랑이의 대립적 인식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또한 호랑이의 습성과 무관하다.

5) 블라디미르 프롭, 최애리역, 『민담의 역사적 기원』, 문학과지성사, 1990. 19-20쪽.

‘기점상황의 혼란과 최후의 안정’, ‘출가와 귀환(또는 추방과 귀환)’이라는 서사구조는 이 설화가 신화 및 제의와 친화력을 갖고 있을 가능성을 함축한다. 이 유형에 나타나는 화소와 구조를 고찰하여 서사 내에 존재하는 신화적 알레고리를 파악한다면 주체의 위상이나 인물 간의 관계, 성기와 호랑이의 상징성 등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일상적 담화의 층위에서 볼 때 이 설화는 전승자들에게 우스갯소리 또는 음담(淫談)으로 소비된다. 대개 음담류의 설화들은 여성혐오 논리에 기반한 성적 농담들로서 남성 욕구충족에 적합한 여성 이미지들을 그려낸다. 이 설화 또한 성기를 매개로 남성에게는 긍정적 이미지를, 여성에게 부정적, 혐오적 이미지를 기입함으로써 가부장적 권력 유지에 유리한 젠더화를 꾀한다는 점에서 음담과 그 궤를 같이 한다. 이러한 음담의 연행과 전승은 젠더 관념을 고착화함으로써 지배 이데올로기를 관철하는 헤게모니 도구가 될 수 있다. 때문에 설화가 재현하는 왜곡된 이미지들에 주목하고 남성 지배를 정당화하는 서사 장치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논의 순서로 이어지는 2장에서는 확보된 각편들을 검토하여 유형을 세분화하고, 하위유형의 서사적 특징을 변별하여 분석의 토대를 마련한다. 3장에서는 주요 화소와 서사구조를 중심으로 텍스트에 내재한 신화적 맥락을 짚어본다. 4장에서는 2장에서 검토한 유형들의 서사를 견주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속에서 젠더 주체가 구성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는 이 설화에 내재되어 있는 가부장적 젠더 정치의 전략에 대해 살피는 일이기도 하다.

## 2. 자료 검토 및 분류

『대계』의 설화유형표에 따르면 ‘음란한 것으로 맹수 도망가게 하기’유

형은 ‘속이고 속기’의 하위 유형 가운데 하나인 ‘속을 만한테 속이기’ 그리고 ‘336 힘겨운 상대방 지략으로 누르기’의 네 번째 유형, 336-4로 분류되어 있다.<sup>6)</sup> 이 유형은 336의 나머지 13개의 유형과 견주어 볼 때, 힘겨운 상대가 사람을 위협하는 호랑이고 이를 누르려는 지략으로 ‘음란한 짓’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유형으로 제시된 25개의 각편을 들면 다음과 같다.

336-4 음란한 짓으로 맹수 놀라 도망가게 하기<sup>7)</sup>

- |  |                         |
|--|-------------------------|
| ①1-3 421 호랑이와 불총                       | ⑤2-8 103 호랑이 물리친 용감한 여자 |
| ②1-6 79 호랑이를 물리친 사람                    | ⑥2-9 29 호랑이 쫓은 부인의 월경   |
| ③2-2 132 호랑이 골린 이야기(1/2) <sup>8)</sup> | ⑦2-9 195 호랑이 물리친 과부     |
| ④2-6 190 호랑이를 물리친 여자                   | ⑧4-1 469 나팔수와 호랑이       |

6) 『한국구비문학대계-별책부록( I )한국설화유형분류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331-335쪽.

※ 한국설화유형표

3. 속이고 속기

33 속을 만한테 속이기(김선달형 및 그 비슷한 하층 인물들의 성공)

336 힘겨운 상대방 지략으로 누르기(김선달형이 아닌 인물의 행위)(동물담을 다수 포함한다)

(사나운 짐승 지혜로 잡으면 → 712-8)

- 336-1 사나운 신부 똥쌌다고 해서 기 죽이기
- 336-2 눈 뜬 사람 속인 장님
- 336-3 성행위하다 들키고 보복하기
- 336-4 음란한 짓으로 맹수 놀라 도망가게 하기**
- 336-5 심술궂은 호랑이 물리친 할머니
- 336-6 자기가 제일 무서운 짐승이라고 호랑이를 속인 여우
- 336-7 간 내먹으려는 용왕 물리친 토끼
- 336-8 호랑이를 물리친 토끼
- 336-9 함정에 빠졌던 호랑이 다시 함정에 넣은 토끼
- 336-10 지혜 겨루어서 여우를 물리친 두꺼비
- 336-11 나이가 가장 많다는 두꺼비
- 336-12 아이를 술에 넣고 도망친 토끼
- 336-13 여우와 경주해서 이긴 개
- 336-14 못된 사돈 피로 누르기

⑨4-3 655 호랑이 쫓은 여자	⑬6-12 898 호랑이 쫓은 문어농청
⑩4-4 739 호랑이 똥에 얼굴 데뻐온 사람	⑬6-12 899 방구소리에 놀란 여우
⑪5-2 56 조총에 놀란 금강산 호랑이	⑳7-6 403 호랑이 쫓은 여인
⑫6-4 895 호랑이와 지혜로운 여자	㉑7-7 435 범을 잡은 새덕
⑬6-5 341 어리석은 호랑이	㉒7-17 101 호식당할 위기를 넘긴 여자
⑭6-6 214 좃물총	㉓8-2 461 호랑이와 이비(2/2)
⑮6-6 588 발가벗은 여자에게 놀란 호랑이	㉔8-14 352 호랑이한테 피로 살아난 할머 니
⑯6-9 181 호랑이 원수 갚은 열녀(2/2)	㉕9-1 110 나팔 분 호랑이
⑰6-12 289 백여우를 물리친 소금장수의 피와 좃총	

25개의 각편에서 맹수는 대부분 호랑이고 두 편에서만 여우가 등장한다. 이 유형에서 음란한 짓은 맹수 앞에 성기를 내보이는 것이며 맹수는 성기를 두려운 것으로 오해한다. 이 유형의 핵심 화소는 ‘성기’를 보여 ‘속이는 짓’이다. 그런데 ⑬는 방구를, ⑧·⑩·⑮는 나팔을 수단으로, 맹수를 소리로 쫓는 것이므로 이 네 편을 제외한 나머지를 논의 대상으로 삼는다.

각주 6에 제시된 설화유형표를 보면, 힘겨운 상대방을 지략으로 누르면 336으로, 사나운 짐승을 지혜로 잡으면 712-8(짐승 잡는 요령 있어 잘되기)로 분류하도록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두 유형을 나누는 기준이 애매하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힘겨운 상대방(336-4의 맹수)’과 ‘사나운 짐승’, ‘지략’과 ‘지혜’는 그 차이가 불분명하다. 그리고 712-8에 속하는 각편들<sup>9)</sup>을 336-4의 것과 대조해보면 712-8의 각편들 가운데 ‘천 명고개와 호랑이 잡은 조총(5-1, 670쪽)’과 ‘호랑이를 잡은 부인(8-4, 596쪽)’, ‘발가벗고 기어서 범 잡은 노파(8-7, 537쪽)’는 336-4의 각편들이

7) 위의 책, 332쪽.

8) ③2-2 132 호랑이 끌린 이야기(1/2)는 자료의 출처를 오기한 듯하다. 『대계』 2-2에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같은 제목으로 『대계』 2-3, 122쪽에 있으므로 이로 대체한다.

9) 712-8의 각편 목록은 『한국구비문학대계-별책부록(Ⅰ)한국설화유형분류집』, 586-590쪽 참조.



지니는 성기 화소와 서사구조를 공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sup>10)</sup> 따라서 이 세 편은 336-4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위의 검토를 바탕으로 712-8의 세 각편을 336-4의 유형에 포함하고 336-4의 네 각편을 제외하고 논의를 진행한다. 그리하여 최종 『대계』의 각편 수는 24편이고, 그밖에 ‘한국구비문학대계 웹 사이트(<https://gubi.aks.ac.kr/web/Default.asp>)’ 자료<sup>11)</sup>와 각종 설화집에서 조사한 자료들을 취합하면 총 68편이다. 자료 목록은 아래와 같다.

#### 336-4. 자료일람표

순	제목	서지정보	지역/채록년도	구연자
•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3.				
1	호랑이와 불총	1-3, 421쪽	경기 양평군	권요규, 남 67
2	호랑이를 물리친 사람	1-6, 79쪽	경기 안성군	이복진, 남 80
3	호랑이 골린 이야기	2-3, 122쪽	강원 삼척군	김진환, 남 68
4	호랑이를 물리친 여자	2-6, 190쪽	강원 횡성군	신금옥, 여 40
5	호랑이 물리친 용감한 여자	2-8, 103쪽	강원 영월군	서순만, 남 74
6	호랑이 쫓은 부인의 월경	2-9, 29쪽	강원 영월군	문현동, 남 70
7	호랑이 물리친 과부	2-9, 195쪽	강원 영월군	엄기복, 남 73
8	호랑이 쫓은 여자	4-3, 655쪽	충남 아산군	김영식, 남 63
9	천명고개와 호랑이 잡은 조총	5-1, 670쪽	전북 남원군	정강현, 남 36
10	조총에 놀란 금강산 호랑이	5-2, 56쪽	전북 전주시	백낙환, 남 90
11	호랑이와 지혜로운 여자	6-4, 895쪽	전남 승주군	장영훈, 남 68
12	어리석은 호랑이	6-5, 341쪽	전남 해남군	김달심, 여 53
13	숫물총	6-6, 214쪽	전남 신안군	이영신, 남 75
14	발가벗은 여자에게 놀란 호랑이	6-6, 588쪽	전남 신안군	강은상, 남 56
15	호랑이 원수 갚은 열녀	6-9, 181쪽	전남 화순군	정봉수, 남 70

10) 하나씩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712-8의 ‘천명고개와 호랑이 잡은 조총(5-1, 670쪽)’과 336-4의 ‘조총에 놀란 금강산 호랑이(5-2, 56쪽)’, 712-8의 ‘호랑이를 잡은 부인(8-4, 596쪽)’, ‘발가벗고 기어서 범 잡은 노파(8-7, 537쪽)’는 336-4의 ‘호랑이 쫓은 여인(7-6, 403쪽)’을 대조해보면 음란한 짓으로서의 성기 내보이기와 서사구조를 공유하고 있음이 쉽게 확인된다.

11) 2008년부터 진행된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에서 조사된 자료의 음성 파일과 텍스트 파일이 제공되어 있다.

16	백여우를 물리친 소금장수의 피와 좇총	6-12, 289쪽	전남 보성군	김병태, 남 45
17	호랑이 쫓은 문어농청	6-12, 898쪽	전남 보성군	백형문, 남 78
18	호랑이 쫓은 여인	7-6, 403쪽	경북 영덕군	이광희, 남 70
19	범을 잡은 새댁	7-7, 435쪽	경북 영덕군	김태만, 남 50
20	호식당할 위기를 넘긴 여자	7-17, 101쪽	경북 예천군	신성군, 남 74
21	호랑이와 이비	8-2, 461쪽	경남 거제군	장재형, 남 72
22	호랑이를 잡은 부인	8-4, 596쪽	경남 진주시·진양군	허연구, 남 54
23	별거벗고 기어서 호랑이 잡은 노파	8-7, 537쪽	경남 밀양군	박주희, 여 72
24	호랑이한테 피로 살아난 할머니	8-14, 352쪽	경남 하동군	홍순이, 여 65
<b>• 한국구비문학대계 DB (<a href="https://gubi.aks.ac.kr/web/Default.asp">https://gubi.aks.ac.kr/web/Default.asp</a>) 2009-2018.</b>				
25	경도(월경)로 호랑이 쫓은 여자		전남 목포 2016	김옥심, 여 81
26	월경혈로 호랑이 쫓은 여자		경기 구리 2014	강순덕, 여 78
27	바지를 벗고 거꾸로 기어가서 호식을 면한 여자		경남 창원 2014	이순이, 여 82
28	음부를 보여 호식 면한 여자		카자흐스탄 타라즈 2016	유레이사알렉산드 로예브나, 未詳
29	여자 음부 보고 도망간 호랑이		경기 동두천 2017	허득녀, 여 85
30	물구나무로 호랑이를 잡은 여자		경남 함안 2013	정학자, 여 76
31	여자의 거시기로 호랑이 잡은 여자		강원 정선 2009	전상준, 남 94
32	치마 쓰고 호랑이 잡은 여자		경남 산청 2012	김시분, 여 81
33	호랑이 잡은 여인		강원 홍천 2010	박동식, 남 76
34	알몸으로 호랑이를 물리친 며느리		전남 광양 2010	장한중, 남 76
35	치마 벗고 뒷걸음쳐서 호랑이를 물리친 여자		경남 창녕 2015	곽동주, 여 78
36	치마 쓰고 뒷걸음으로 가서 호랑이를 물리친 할머니		경남 창원 2014	손선옥, 여 78
37	호랑이 물리친 처녀		경북 김천 2016	이정선, 남 83
38	호랑이를 물리친 여인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2015	신크세이나분서너브나, 여 81
39	호랑이를 물리친 여자		경기 고양 2014	고삼례, 여 未詳
40	호랑이를 물리친 처녀		전남 구례 2009	이희철, 남 76
41	옷을 벗어 호랑이 쫓은 선비		경기 김포 2009	민인기, 남 75
42	호랑이가 포수의 남근이 총인 줄 알고 도망간 이야기		부산 연제구 2010	고계순, 여 80
43	자신의 성기로 호랑이 물리친 사람		경남 창원 2014	강귀연, 여 79
44	치마를 뒤집어쓰고 호랑이 쫓은 여인		강원 원주 2010	조공수, 남 77
45	치마를 벗고 뒷걸음 쳐서 호랑이를 쫓은 여자		경남 창원 2014	최삼희, 여 76

46	호랑이 쫓은 머느리 고개		경기 구리 2014	김정배, 남 70
47	호랑이 쫓은 여인		경기 성남 2016	강갑숙, 여 83
48	호랑이 쫓은 여자		강원 평창 2009	홍영자, 여 77
49	호랑이 쫓은 여자		강원 평창 2009	백순자, 여 62
50	여자 음문 보고 달아난 호랑이		경기 양주 2012	고정오, 남 80
51	옷을 벗고 거꾸로 기어가서 호랑이를 쫓아버린 여인		경남 창원 2014	우봉연, 여 83
52	옷을 벗어 호랑이를 기절시킨 머느리		경남 함안 2013	조순례, 여 71
53	할머니의 뒷모습 덕분에 호랑이에게 살았다는 이야기		부산 동구 2010	김종태, 남 74
54	호랑이 고개 넘어가기		경남 창원 2014	이상수, 여 81
55	호랑이 물리치고 고개를 넘은 여인		경기 안양 2018	정늬이, 여 84
56	호랑이는 붉은 것을 무서워한다		전남 순천 2017	탁미자, 여 73
57	호랑이를 만난 여자가 옷을 벗고 뒷걸음 쳐서 호랑이를 쫓았다는 이야기		경남 남해 2011	하관칠, 남 79
58	산길을 가던 여자가 옷을 벗어서 호랑이를 쫓았다는 이야기		경남 남해 2011	박경아, 여 82
59	기지로 호랑이 고개 넘어간 여자		경기 가평 2009	심복임, 여 76
60	호랑이 물리치고 시아버지 구한 현풍 꼭씨 머느리		경남 양산 2009	배금석, 여 85
<p>•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 평안북도편 2』, 평민사. 1988.</p>				
61	냄새로 범 잡은 여자	292-293쪽	평북 선천 1932	이영학, 남 未詳
<p>• 이기원, 『조선호랑이 이야기』, 학민사. 1993.</p>				
62	동부인의 유래	247-249쪽	未詳	한홍자, 여 未詳
<p>• 김선풍 외, 『평창군의 설화』, 국학자료원. 2002.</p>				
63	호랑이를 물리친 현명한 여인	219-220쪽	강원 평창 2002	이광우, 남 61
<p>• 『횡성의 구비문학 I』, 횡성문화원. 2002.</p>				
64	도망간 호랑이	994쪽	강원 횡성	강혜원, 여 77
65	지혜로운 여자 고개 넘기	1211-1212쪽	강원 횡성	안창훈, 남 68
<p>• 『영남구전자료집 2 - 경남 산청군』, 박이정. 2003.</p>				
66	여자 허문보고 놀란 호랑이	211쪽	경남 산청 1994	윤연수, 남 80
<p>• 신동훈 외, 『도시전승 설화자료 집성 9』, 민속원. 2009.</p>				
67	호랑이 잡은 여인	41-43쪽	대구 중구 2006	박종문, 남 80
<p>• 박경수·황경숙 편저, 『동부산 문화권 설화(Ⅱ) -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편』,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13.</p>				
68	이상하게 생긴 입보고 도망간 호랑이	279쪽	부산 해운대구 2012	이말임, 여 68

우선 한눈에 파악되는 정보는 ‘음란한 것으로 맹수 도망가게 하기’ 유형의 지역적 전승 상황과 구연자의 성별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 유형은 호랑이담 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했으나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꾸준히 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 각편 수를 정리하면 평안도 1편, 경기도 11편, 강원도 13편, 충청도 1편, 전라도 13편, 경상도 26편, 국외(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2편, 미상 1편이다. 구연자의 성별 비율은 80-90년대 자료에는 남성이 월등히 많고 2000년대 이후 자료에는 여성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분석을 위해서는 하위 유형으로 나누고 변이 양상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유형은 남자 또는 여자가 산에서 성기를 이용하여 호랑이를 속여 쫓았다는 것이 핵심 서사이며 결핍-기만-기만의 성공-결핍제거의 모티프(motifeme)들로 전개된다.<sup>12)</sup> 여기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고 삽화가 첨가되면서 변이형을 형성한다. 68편의 종합적 서사단락을 간략화하고, 모티프들을 대응시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A 남자/여자가 산에서 호랑이를 만나 죽을 위기에 처한다. -결핍
- B 옷을 벗고 성기를 내보여 위협한 것으로 속인다. -기만
- C 호랑이가 성기를 위협한 것으로 오인한다. -기만의 성공
- D 호랑이가 죽는다(달아난다). -결핍의 제거/결핍의 가제거
- E a 호랑이가 의심하여 돌아오다. -결핍2
- b 새로운 인물이 산에 가서 호랑이를 만난다. -결핍2
- F a 노파가 성기를 보여 남자의 말을 확인시켜 준다. -기만2
- b 배운 대로 성기를 내보여 위협한다. -기만2
- G a 호랑이가 재차 속는다. -기만의 성공2
- b 호랑이가 속지 않는다. -기만의 실패

12) ‘모티프’이란 던테스가 사용한 설화분석 단위로 설화의 기점상황이라든가 등장 인물의 행위를 한두 어절로 간단하게 추상화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그의 모티프 개념을 원용하여 설화의 순차적 구조를 살펴보기로 한다. 김화경, 『한국의 설화』, 지식산업사, 2003. 94-95쪽 참조.

- H a 호랑이가 달아난다. -결핍의 완전제거  
 b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는다. -결핍 제거의 실패

이상의 모티프들은 논리적 필연성에 따라 긴밀하게 구성되어 ‘음란한 것으로 맹수 도망가게 하기’ 유형의 하위유형을 만들고 있다. 모티프의 배열 형태를 고려하여 전 각편이 공유하는 A~D를 갖춘 자력형을 기본형으로 설정하고 A~D-Ea-Fa-Ga-Ha를 협력형, A~D-Eb-Fb-Gb-Hb를 모방형으로 명명하기로 한다.<sup>13)</sup> 각 유형은 다음과 같은 모티프들로 연결되어 있다.

336-4. 하위유형 분류

①자력형	결핍-기만-기만의 성공-결핍의 제거
②협력형	결핍-기만-기만의 성공-결핍의 가제거-결핍2-기만2-기만의 성공2-결핍의 완전제거
③모방형	결핍-기만-기만의 성공-결핍의 제거-결핍-기만-기만의 실패-결핍 제거의 실패

① 자력형: 결핍-기만-기만의 성공-결핍의 제거

먼저 자력형은 전체 68편 중 가장 활발한 전승을 보이는 유형으로 57편을 차지한다. 남성 혹은 여성이 홀로 호랑이와 대적하며, 무리와 함께 있는 경우에도 단 한 사람의 역량으로 호랑이를 쫓는다. 인물들은 평범한 민초들로서 남성은 머슴, 솥쟁이, 여성은 처녀, 젊은 새댁, 열녀, 중년 여성, 노파 등이다. 남성담이 4편(2,12,17,43), 여성담이 53편이다. 자력형의 여성담이 전승되는 이야기의 대부분이라는 것은 자력형의 여성담이 오랜 기간에 걸쳐 전승되어 왔으며 전승자들의 취향이나 의식을 가장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것임을 짐작케 한다.

13) 결핍을 해결하는 주체와 서사구조를 토대로 명칭을 붙인 것이다.

A~D 모티프에 해당하는 서사를 확인해 보면, 요소(element)<sup>14</sup> 차원의 변이들을 발견할 수 있다. 호랑이가 나타나 개인 및 공동체에 위협이 가해지는 기점 상황에서 호랑이와 대면하게 되는 이유와 상황들은 각양 각색이다. 남성의 경우, 구경하러 산에 올랐다(2)/호랑이가 인가로 내려와서(12)/산에서 잠을 자다가(17)/호환을 해결하기 위해(43), 그리고 여성의 경우 산에서 일을 하다가/산을 넘어 집에 오다가/부모님의 병, 부고, 제사 등 집안의 대소사로 산을 넘다가/남편 원수를 갚기 위해/호환을 해결하기 위해<sup>15</sup> 정도로 정리된다.

기만은 결핍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행해지며, 모든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옷을 벗고 성기를 드러내어 호랑이를 속인다. 남성의 경우 성기를 드러내거나 방뇨를 함께 함으로써, 여성의 경우 탈의하여 성기를 드러내면서 방구를 끼거나 월경(18편) 중임을 함께 보여 호랑이를 위협하고 속인다. 기만이 성공하는 경우, 호랑이는 성기를 공포스러운 것, 괴이한 것, 더러운 것 등으로 인식하고 도망간다. 기만의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이 성기를 드러내는 것은 같지만 성기를 드러내는 방식과 그에 대한 호랑이의 태도는 다르다. 남성담 4편 모두에서 남성은 대체로 말로 호랑이를 협박하는데, 그는 성기를 세우고 총에 비유하여 속인다. 호랑이는 의심 없이 총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즉시 달아난다. 여성담에서는 몸짓과 더불어 말로 협박하는 경우가 4편(3,6,51,59), 침묵하며 몸짓으로만 협박하는 경우가 49편으로 월등히 많다. 여성의 몸짓은 알몸 상태이거나/치마를 덮어쓰고 반라(半裸)의 상태에서 거꾸로 기어 호랑이에게 다가간다. 호랑이는 여성의 성기를 유심히 관찰하고 성기를 정체

14) 요소는 화소(motif)의 하위개념으로 화소를 구성하는 더 작은 요소를 이른다. 조희웅, 『한국설화의 유형적 연구』, 한국연구원, 1983. 4-5쪽 참조.

15) • 산에서 일하다가: 4,7,8,11,18,20,21,22,24,40,45,53,66 • 산을 넘어 귀가 도중: 23, 36 • 집안의 대소사로 산을 넘다가: 3,5,14,19,27,46,50,51,52,54,59,60,63 • 남편 원수 갚기: 15 • 호환 해결: 6,26,30,31,62,64,65,67 • 불명: 25,29,32,33,35,37,39,44,47, 48,49,55,56,58,61,68

모를 짐승의 입, 괴물의 입 등으로 오인하며, 월경 중인 여성의 경우 다른 짐승을 잡아먹어 피 흘리는 상위포식자로 인식한다. 호랑이가 겁을 먹고 달아나거나 죽게 됨으로써 결핍이 제거되고, 각편에 따라 칭찬/상을 받거나 부자가 되는 결과가 추가된다.

② 협력형: 결핍-기만-기만의 성공-결핍의 가제거-결핍2-기만2-기만의 성공2-결핍의 완전제거

협력형은 7편(1,9,10,13,16,41,42)이 전승되며 이 유형은 복수의 인물이 협력하여<sup>16)</sup> 호랑이를 퇴치하는 것으로, 남성이 호랑이를 먼저 쫓고(A~D) 이것이 불완전하여 여성이 재차 쫓는 내용(Ea~Ha)으로 되어 있다. 남성은 소금장수, 학자, 선비, 포수 등으로 나타나고 여성은 한 편만 주모이고 나머지는 모두 노파이다. 우연히 산길에서(13,41) 호랑이를 만나거나 인간으로 변한 호랑이와 장기를 두다가 또는 두는 것을 보다가(1,9,10,16)/호랑이를 잡으러 산에 갔다가(42) 결핍상황에 놓인다. 남성은 자력형-남성담의 방법과 같이 성기를 총(조총, 물총, 불총)이라 속여 호랑이를 쫓는다. 하지만 호랑이가 총에 대해 의심하여 완전히 퇴치되지 못하고 두 번째 결핍이 발생한다. 호랑이는 여성에게 총의 무서움에 대해 묻고, 여성은 성기를 보여주며 총에 맞아 생긴 아물지 않는 구멍임을 확인시켜 준다. 호랑이가 여성의 성기를 살펴보고 재차 속아 달아남으로써 결핍이 완전히 해소된다.

③ 모방형: 결핍-기만-기만의 성공-결핍의 제거-결핍-기만-기만의 실패-결핍 제거의 실패

모방형은 비교적 근래에 채록된 자료(2010~2016)들로 4편(28,34,38,57)이 확인된다. 협력형과 마찬가지로 복수의 인물이 나타나지만 자력형

16) 처음부터 서로 도와가며 협력하여 쫓는 것은 아니고 1,2차에 걸쳐 완전히 퇴치되므로 결과적으로 그러하다는 것이다.

의 구조를 반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 번째 인물이 호랑이를 쫓는 사건이 끝나고(A~D) 두 번째 인물이 이를 듣고 모방하여 호랑이를 쫓는 내용(Eb~Hb)으로 전개된다. 모방한 인물은 호랑이 퇴치에 실패하고 호랑이에게 잡아먹힌다.

모방형의 주목할 만한 특징은 호랑이 퇴치 여부가 인물이 지닌 성 에너지에 따라 또는 인물의 유교적 규범 준수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복수의 인물은 여성-남성(28,34,38) 또는 효부-불효녀(57)가 등장하며 기점상황에서부터 여/남 또는 효/불효의 대조적인 속성을 안고 출발한다. 자료 38(登山 이유 未詳)을 제외한 3편에서 (시)부모의 구원을 위해 산을 넘다 호랑이를 만나는 결핍 상황이 제시된다. 기만의 방법은 자력형과 같이 각각 성기를 내보이고, 호랑이가 속는 방식도 같다. 남성-여성담에서 여성들이 성기를 보이고 거꾸로 기어서 호랑이를 쫓는 데 성공하는 반면, 남성들은 성기를 내놓지만 호랑이가 남근을 혀로 생각해서(28,34)/남근에 힘이 없어(38) 잡아먹힌다. 즉 남성들은 성(남근) 에너지의 부족으로 호랑이 퇴치에 실패한다. 효부-불효녀담(57)은 으레 효행담의 권선징악적 결말이 그러하듯 효부는 호랑이로부터 살아남고 불효녀는 잡아먹힌다. 효부가 호랑이를 쫓고 시부모의 약을 구하여 상을 받게 되자 이를 시기한 불효녀가 효부를 따라하지만 호랑이는 불효녀의 불효한 행실과 월경 없음을 근거로 잡아먹는다.

### 3. 설화에 나타난 신화적 맥락

성기에 마력이 있다는 믿음은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한 것이다. 인간이 성기를 숭배 대상으로 삼음은 생물학적 토대보다는 성기를 생명력의 원천으로 신성시하면서 상징화하였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성기는 개인 및 집단에게 다산/풍요/벽사초복(辟邪招福)을 가져다주는 영험한 신물



(神物)로 숭배되거나 하나의 상징체계로 자리 잡았다.<sup>17)</sup> 반구대 암각화나 농경의기에 표현된 성기, 신에게 제사지낼 때 양구를 세워놓고 가무를 하였다는 기록<sup>18)</sup>, 안압지에서 출토된 목제 남근과 고분에서 출토된 토우의 과장된 남근/여근 등은 성기가 생식력 기원은 물론 악령을 추방하는 주물로 숭배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sup>19)</sup> <음란한 짓으로 맹수 놀라 도망가게 하기><sup>20)</sup> 설화의 핵심 화소는 ‘악’의 존재인 호랑이 퇴치를 위해 신성한 힘을 발휘하는 성기로서 호랑이 퇴치 주체들은 오로지 성기(남근/여근-월경)를 내보여 호랑이는 속이는 방법을 취한다. 이는 곧 이 설화가 성기 숭배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생성된 것이며 성기의 생명력에 기대어 행했던 제의와 무관하지 않을 것임을 짐작케 한다.

대개 성적(聖的) 에너지가 충만한 성기는 신 또는 신화적 인물의 징표이다. 그리스의 헤르메스(Hermes)와 이집트의 오시리스(Osiris)<sup>21)</sup>, 제주도의 설문대 할망과 할아범, 신라의 지증왕과 그의 왕비, 가야의 김수로왕과 허왕후 등<sup>22)</sup>이 대표적이다. 이들의 성기에 대한 서사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며, 성기는 거근 이미지와 결합하면서 강력한 에너지를 지닌

17) 장장식, 「성기신앙의 형태와 성격」, 『한국민속학』 27-1, 한국민속학회, 1995. 395-396쪽.

18) 구사회, 「신라의 성기숭배와 지증왕의 음경」, 『서강인문논총』 46, 서강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6. 110-111쪽.

19) 이난영, 『토우』, 대원사, 1991. 64-74쪽.

20) 정해진 설화명이 없으므로 유형명을 설화명으로 삼는다.

21) 고대 그리스에서는 남근을 본뜬 헤르메스 주상이 집안의 수호신으로 숭배되었으며 헤르메스 주상은 길가에 세워져 지역 보호신으로도 숭배되었다. 이는 동물의 수컷이 지배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 발기한 남근으로 침입자를 위협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 한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식물의 신 오시리스가 자신의 남근을 쥐고 서 있는데, 이것은 이듬해 풍년을 약속하는 상징이다.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 『한국문화상징사전』, 동아출판사, 1992. 157쪽.

22) 설문대할망과 할아범이 거근으로 사냥함은 신이 지닌 생명/풍요의 힘을 의미하며 지증왕과 왕비의 거근 또한 그 자체로 생산력과 풍요를 상징한다. 수로왕과 왕비의 거근은 희화화된 형태이나 마찬가지로 생산적 성격을 갖는다. 즉 수로왕과 왕비가 거근으로 다리를 놓고 음식을 까는 행위는 설문대할망이나 마고할미가 그랬던 것처럼 인간을 위한 신의 창조적 행위이다.

신물로서 인물의 신성을 보증한다. 뿐만 아니라 제의와 신앙의 대상이 되는, 거대한 성기를 형상화한 자연물이나 인공조형물들은 충만한 생산력 그자체로서 신의 신체(神體)로 치환되기도 한다.<sup>23)</sup> 초월적 힘을 지닌 성기가 신화적 인물의 신성 표상이듯 이 설화의 남녀 주체들 또한 그들이 지닌 성(性)에 내재한 신성을 발휘하는 자로서 신이나 신화적 인물에 대응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음란한 짓으로 맹수 놀라 도망가게 하기’ 유형에 해당하는 각편 전체를 조망해 볼 때, 호랑이 퇴치 주체가 여성인 경우가 압도적이고 자료가 많을수록 서사에 내재된 관념이나 의미를 살피기 용이하므로 여기서는 자력형의 여성담을 중심으로 신화적 맥락을 상세화하도록 한다.

#### 1) 여성주체의 신성한 능력과 위상

이 설화에서 가장 의외성이 나타나는 부분인 웃음을 자아내는 핵심부는 사나운 호랑이를 성기로 대적하는 대목이다. 설화 속 여성들은 우연히 호랑이를 만나든, 자발적으로 호랑이를 만나든 간에 별다른 고심 없이 성기(월경)를 내보이고 호랑이는 대부분 성공적으로 퇴치된다. 여기서 성기를 내보이는 것은 호랑이를 퇴치하기 위한 속임수이며 자발적으로 호랑이 퇴치에 나선 각편들에서 여성의 비범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자료3].....두 내외가 걸어가는데 가다 이래 보니 이렇게 보니. 앞에 한참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와 같이 호랑이가 앞발을 들고 내려오다 이제 이 사람들은 올라가는데, 그래 이제 당황해서 말할 새도 없이 남자는 오히려 담이 없어 가지고 뒤으로 간단 말이야. 여자를 앞 세우고 자기

23) 신라의 여신승배 신앙에서 이를 찾아볼 수 있다. 신라 곳곳에서 발견되는 여성 성기 암각화들, 무수한 성혈(性穴)바위 등은 여신 상징으로 해석된다. 일례로 신라 서술성모가 거주하던 선도산의 성혈바위, 우물(나정) 등은 성모의 신체를 의미하며 다산과 풍요, 수호의 기원 대상이 된다. 김명숙, 『첨성대, 여신 상이자 신전』, 『한국여성학』 32, 한국여성학회, 2016, 140-185쪽 참조.

마누라를 앞 세우고 그런데 이 여자가 이럴 적에 월경이 있었던 모양이래요. 월경이 있었는데. 돌아서서 까꾸로 가는 척하고 옷을 밑에를 벗어 버리고.....

[자료4]...인자 하루는 사람이 세 번 다 갔는데 세 번 다 호랑이가 다 잡아 먹었어. 그래서...오늘은 인제 좀 딴 방도로 해서 가보자 그래가지고 인제, 여자가 인제 하루는 나물을 뜯으러 가는데, 인제 속옷을 벗어가지고 인제 거꾸로 얼굴에다 쓰고, 인제 밑에는 완전히 벗은 거지. 아주 밑에는 완전히 벗고 얼굴에 썼으니깐 그래서 네 발로 기어서 다리골, 산으로 올라가니까 호랑이가 이제 썩 내려와서 보니까 잡아먹을라고 내려와 보니까네.....,

[자료30]부락에 나서 호랭이가 또 특히나 처녀들을 더 잡아먹더라 하네. 하루는 이런 집이 있습니까 산간 집에다 층에 울도 담도 없이 [손으로 대략 집 모양을 표현하며]참 예쁜 딸이 하나 층에서 잠을 자는데 호랭이가 넘어다보고 고마 처녀를 물고 달아나는기라. 그래 동네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뒤를 쫓아도 아가씨가 호랭이한테 쟈히가서 목히는기라. 목고 이래서 너무도 한 집만 그라는기 아니라 부락 동네에 저질러 사서, 여자를 마 대찬 여자가, 50대 여자가 나섰는기라.

[자료31]...호랭이가 사람 잡아 겁이 나서. 그런데 남자 서이 그 재 밑에, 재 넘어 갈라고 몽둥이 들고 와보이 딱 셋뿐이지 사람이 안 오네. 거 앉아 사람이 올 때를 바래코(바라고) 앉았다. 앉았다이 뭘 여자가 옷통에 꺼무한 거 해 입고 하나이 덩뎡뎡 올라오네. 그 재를 넘어갈라 덩뎡뎡. “여보, 여보 아주머이, 아주머이!” “왜 그러냐고?” “거 가지 말라고.” 쫓았네. “왜 그러냐고?” “그 호랭이가 하나 둘이 가면 사람을 잡아, 여서 열이나 열, 열다섯이나 몽둥이를 들고 올라가지 그러지 않으면 못 간다고.” “아 그럼 날 따라 오라고.” 아 이런 망할놈의 여자가 따라 오라네... 여자를 따라가다이 이놈우 여자가 속에서 후떡 벗어서 모가지에다 청청 청 매가지고 까재{가재} 매로{처럼} 뒷걸음질해 올라간다.....

[자료64]...그 고개는 뭘 뎡기지를 못하는데요 그 범이 나와서. 뎡기지도 못해서 한 여자가 “남자가 뭐가 무서워. 내가 가서 다시 오지 못하게 한

다.”고, 여자가 장담을 하고 갔데요...경도 있을 적에 이 놈의 고개에 갖 별정계 해가지구는 거꾸로 영금영금 기어왔데요...그러니까 그 고개 다 시 그계(호랑이) 만나오더라우. 여자가 장담을 하고 올라갔데요...

위의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호랑이로 인해 개인과 공동체에 위기가 도래하였고, 한 여성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성기와 월경을 이용하여 호랑이를 퇴치한다는 것이다. 호랑이는 민속에서 산신과 동일시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는 존재로 안정된 질서의 재편을 위해 퇴치되어야만 하는 부정(不淨)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sup>24)</sup>

몽둥이로 무장한 남성들도 겁내는 호랑이가 이 설화의 여성들에게 두려운 대상이 아닌 까닭은 그녀들이 호랑이 퇴치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료를 보면 호랑이를 만나기 전에 미리 성기를 내보인 형태로 모습 바꾼 것(속임수-변신)에서 호랑이 잡는 법을 알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그러기에 산에 오르기를 만류하는 남자들을 거부하고 호연장담은 물론 홀로 태연히 호랑이와 대적하는 상황이 가능하게 된다.

호랑이를 위협하고 제거할 수 있었던 결정적 수단은 속임수이다. 속임수 화소는 신화에서도 보이는 화소로 이때의 속임수는 악이 아니라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능력의 표시이다. 속임수가 능력인 까닭은 그것이 곧 세계의 질서를 알고 있다는 징표이며 다른 사람보다 인식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신화 주인공들이 수행해 나가는 신화적 사건들은 주술과 속임수를 쓸 줄 아는 능력과 더불어 성

24) 이 설화에서 호랑이는 맹수로서의 동물성을 지녔기에 퇴치대상으로서 악귀나 액, 부정과 등가성을 지닌다. 호랑이와 악귀는 이질적인 것이지만 인간에게 해를 끼치고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존재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실제 호랑이는 귀신 이미지와 결합하기도 하는데, 호식당해 죽은 사람은 창귀가 되며 이는 호랑이에 붙어서 다른 사람을 유인하여 연쇄적으로 창귀가 되게 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호랑이의 출현은 미래의 불길한 징조로 해석되는가 하면 호랑이에 대한 공포가 역병의 공포와 결합하여 호열자—호랑이가 살점을 찢는 것처럼 고통을 주는 병(콜레라)—라는 병명도 생겼던 것을 보면 호랑이는 삶의 안위를 위해 반드시 축출되어야 하는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취된다. 이를테면 주몽은 주술과 속임수로 비류국(沸流國)을 복속(服屬)시키고 탈해는 속임수로 지략을 인정받아 부마(駙馬)가 된다.<sup>25)</sup> 또한 유화는 금와를 속여 주몽으로 하여금 준마를 얻게 한다. 뿐만 아니라 『초공본풀이』의 주자선생이나 『송당 신화』의 여신 백주또와 같은 무속신화 주인공들 또한 속임수와 주술을 쓰는 능력으로 서사적 난관을 돌파한다.

설화 속 여성의 속임수는 변신이다. 변신 또한 단군에서 해모수, 탈해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신화적 인물들이 지닌 권능이면서 무당의 권능이기도 하다. 여성은 성기 노출을 위해 나체 혹은 반라에 치마를 거꾸로 덮어쓴 모습으로 변하는데 이는 성기의 주력을 이용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민간신앙적 제의에서 볼 수 있는 사령을 속이려는 무속적 전략과 상통한다.<sup>26)</sup> 즉 호랑이를 퇴치하는 여성은 속임수와 주술을 쓸 수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위의 신화 인물들과 그 속성을 공유한다. 그녀만이 호랑이 퇴치법을 알고 있는 특별한 존재이며, 그녀의 속임수로 개인 및 공동체의 위기가 극복됨으로써 세상의 질서를 어떻게 움직여야하는지 잘 아는 우월한 존재임이 증명된다.

한편 여성의 성기에 내재된 힘은 월경이 더불어 나타남으로써 더욱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자력형-여성담의 각편 53편 중 월경이 함께하

25) 주몽과 탈해의 속임수와 주술은 그들의 신적 권능을 표상하는 동시에 그들이 무당적 트릭의 소유자임을 말해준다, “애니미즘적 세계관 속에 살면서 무당들은 영들이 위협과 공포에 늘 맞서야 했다. 이들 상고대 사회 최초의 지도자들은 위협을 이기기 위한 방편으로 주술과 트릭을 함께 부릴 줄 알아야 했다. 악령을 병목에 몰아넣어서 가둔다거나, 사람 몸을 침노한 마를 쫓아내는 따위의 굿에서는 그는 매우 연극적인 트릭을 베풀어야 했던 것이다.” 김열규, 『3.속임수의 명수들(1)』, 『한국문화사』, 탐구당, 1992, 390쪽.

26) 나체가 종교의식에 등장하는 경우 종종 있었다. 아프리카의 바송고족의 여자와 루마니아 트란실바니아의 소녀는 가뭄 때 나체로 기우제를 지낸다. 인도의 구자라트에서는 자식이 병이 들면 어머니가 절에서 나체가 되어 완쾌를 기원한다. 이러한 의식의 원리는 집행자가 일상적인 옷 입는 습관을 깨뜨림으로써 자연의 운행에 변화를 주어 비를 오게 하거나 병을 낫게 하려는 주술적인 동기라고 한다. 그리스 로마에서도 주술을 할 때 종종 나체가 된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모습을 바꿈으로써 사령을 속이려는 데 동기가 있다 한다.

는 각편은 18편이며 월경이 함께할 때 호랑이는 여성 성기에 대해 더욱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여성 성기와 월경과 같은 여성 몸의 표상들은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서 승배와 혐오의 대상이 되어왔다. 특히 일상에서 여성의 성기나 월경 노출은 부정을 야기하는 일로서 반사회적 행동으로 금기시되어 왔다. 하지만 이 설화에서는 성기나 월경에 내재한 에너지를 부정적인 것, 불안과 공포를 야기하는 것이 아닌 문제를 해결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힘으로 인식한다.

월경에 대한 긍정은 곧 여신의 오줌과 더불어 월경이 지니는 신화적 상징성을 환기한다. 거인 신화나 탈놀이에 나타나는 여신의 오줌은 창조적 권능을 증명하는 사건이다. 여신의 오줌이 생산과 풍요의 물을 표상한다면, 월경은 자궁에서 흘러나온 피로서 오줌보다 직접적인 생산의 힘을 상징한다. 그렇다면 여신의 월경혈은 창조의 성적(聖的) 에너지가 응축된 대상으로서 더욱 강력한 힘을 지닌 것이며, 그러기에 풍요와 재생, 벽사의 힘을 기대할 수 있다. 여러 민족에서 발견되는 월경혈이 받을 기쁨지게 해준다는 믿음이나 병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믿음, 악귀를 물리치는 주력을 지닌다는 믿음들도 월경의 신성 에너지를 긍정하는 신앙 심리에 기인한 것이다.<sup>27)</sup>

여신의 월경이 나타나는 서사에서 월경은 주체의 신적 속성과 관련하여 신성 에너지를 표상한다. 특히 ‘서답(월경대) 빠는 여인’이 등장하는 서사에서 월경은 창조와 재생 등을 담당하는 여신적 권능을 함축한다.<sup>28)</sup>

27) 고대 로마에서는 월경혈이 밀밭의 생식력을 북돋는다 여겼고 생리 중인 여성이 옥수수대 주위를 나체로 걸으면 암종병, 땅벌레, 파리 등으로부터 병충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믿었다. 모로코에서는 월경혈을 사람의 상처 치료에, 스웨덴에서는 가축의 고통과 병의 치료제로 사용했다. 이외에도 정약용의 《마과회통》에도 월경수가 두창의 치료제로 쓰였다는 기록이 있다. 진도의 액막이 의례는 월경에 내재한 주력을 활용한 대표적 예이다.

28) 서답 빠는 여인의 형상이 지닌 여신적 성격은 강진옥과 권태효에 의해 논증된 바 있다. 강진옥, 『마고할미설화에 나타난 여성신 관념』, 『한국민속학』 25, 한국민속학회, 1993. 권태효, 『한국의 거인 설화』, 역락, 2002.

『삼국유사』의 탑상편에는 원효가 도를 얻기 위해 길을 가던 중 월수백(월경대) 빠는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가 있다.<sup>29)</sup> 원효가 여인에게 물을 청하자 그녀는 월수백 빨던 물을 떠서 바친다. 이 여인은 관음의 화신이었고 그녀가 떠준 서답 뺨 물은 신성한 물로서 깨달음을 가능하게 하는 물이었지만 원효는 이를 거부함으로써 득도에 실패한다. 산 이동 설화에도 서답 빠는 여신 형상이 나타난다. 무질서하게 이동하는 산이 여신(여인)의 서답 뺨 물, 월경혈에 의해 멈추게 되었다는 사건은 곧 창조와 재생에 관련된 신성 사건을 표상한다. 산 이동 설화가 거인 설화가 지닌 창조신화적 성격을 간직하고 있는 이야기임<sup>30)</sup>을 고려할 때, 설문대 할망과 마고 할미의 서답 빠는 행위는 월경관련 금기 위반으로서의 과오가 아니라 거인신의 월경혈에 내재한 생산 에너지로써 마을 산, 우주의 형성에 관여한 신화적 사건의 구현이라 할 것이다.<sup>31)</sup> 문면에서 직접적으로 여신임이 드러나지 않지만 성씨시조신화에서 시조모로 나타나는 서답 빠는 여인이나 바리데기 신화에서 바리데기의 앞날을 알려주는 서답 빠는 여인도 신성한 존재를 낳은 성모(聖母) 그리고 신성한 인물의 조력자로서 선지적(先知的) 능력을 지닌 초월자로 해석가능하다. 따라서 이들 또한 위의 서답 빠는 여신의 계보에 있는 존재이며<sup>32)</sup> 이들의 월경 또한 여신적 속성에 결부되어 신화적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29) 일연, 이재호 옮김, 『삼국유사』, 제4 『탑상』 <낙산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 솔출판사, 1997.

30) 천혜숙, 『여성신화연구(1) - 대모신의 상징과 그 변용』, 『민속연구』 1, 안동대민속학연구소, 1991. 권태효, 『한국의 거인 설화』, 역락, 2002.

31) 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설문대 할망>, 제주탐라문화연구소, 1985, 511-512쪽.

32) 권태효에 의하면 성씨시조신화의 경우 서답 빠는 여인이 비밀상적인 잉태를 하고 비범한 인물인 시조를 출산한다는 점에서 성모신의 성격을 가지고, 바리데기 신화의 경우 바리데기 신화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서사무가나 바리데기 무가의 이본에 나타나는 서답 빠는 조력자가 신(조왕신, 천태산 마고할미 등)으로 나타나는 것에 근거하여 이들이 여신에 대응하는 존재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권태효, 『표모형 설화의 신화적 성격 연구』, 『인문논총』 6, 경기대 인문대학, 1998 참조.

그 밖의, 민속에 나타난 월경 표상에 대해 덧붙이면, 예천 청단 놀음에 등장하는 쪽박광대의 피속곳은 쪽박광대가 생산신이라는 것과 관련하여 풍요 다산의 상징성을 지니며<sup>33)</sup>, 진도 액막이 의례에서의 여성의 피속곳은 월경혈에 내재한 신성 에너지가 벽사력을 지닌다는 점에서 여신적 속성에 닿아 있다.<sup>34)</sup> 진도 액막이 의례의 주체가 여성이고 여성의 피속곳을 이용하여 액을 퇴치한다는 점에서 이 설화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지만 주체의 성격을 대조해볼 때 이 설화의 여성은 성기든 월경이든 자신의 신체로써 스스로 성화(聖化)된 몸을 현현한다는 점에서 보다 여신에 가깝다 할 수 있다.<sup>35)</sup>

이상의 예들은 월경이 창조 및 재생, 풍요 등과 관련하여 여신의 신성 표상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신의 오줌과 똥이 지니는 신화적 상징성은 익히 잘 알려져 있기에 따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궁극적으로 신화적 서사에 나타나는 오줌, 똥, 월경 등 여신의 배설물은 성(聖) 에너지가 깃든 대상이며, 여신들은 이로써 세계를 창조하거나 거둬나게 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권능을 드러낸다. 같은 맥락에서 이 설화의 호랑이 퇴치 주체인 여성 또한 자신의 몸에 깃든 생명력으로 우주를 재생시키는 여신의 속성을 지닌다. 호랑이로 인해 혼란스럽고 오염된 사회, 병든

33) 박진태, 『전환기의 탈놀이 접근법』, 민속원, 2004, 323-328쪽 참조.

34) 이현수는 진도 액막이굿과 같이 여성에 의해 주도되는 굿의 기원을 고대의 성모(여신)신앙과 더불어 여신적 존재이자 사제권을 상속한 국무인 왕비(혁거세 비인 알영, 남해왕의 親妹이자 유리왕의 비인 阿老, 탈해의 비인 阿孝 등)와 같은 이들이 제의를 담당해왔던 것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액막이굿은 국가수호신이었던 여신들이 행하던 의례를 재현한 의례이자 신화라 할 수 있다. 이현수, 『진도 도깨비굿 고』, 『月産 任東權博士 頌壽記念論文集:民俗學篇』, 집문당, 1986, 139-140쪽 참조.

35) 액막이 의례를 수행하는 여성은 주술사나 무당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주술사는 주약·주구 등을 이용하여 재앙에 대응하고 무당은 영혼이나 신의 도움을 받아 그 능력을 발휘한다. 주술사는 정령을 목적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개인적인 문제해결에 주목적이 있지만, 무당은 신이나 정령으로부터의 가호를 기원하여 종교적인 일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본질로 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 한국정신문화원, 1991, 834-835쪽 참조.



사회가 도래하였고 사회 재생을 위한 영웅의 등장인물인 상황이 절실한 상황에서 여성은 자신만이 알고 있는 변신의 속임수와 성기/월경의 주력으로 호랑이와 대적한다. 그 결과는 100% 여성의 승리이다. 이 여성의, 필연적이고도 일방적인 승리일 수밖에 없는 까닭은 문제해결을 위한 능력의 근원이 다름 아닌 원초의 어머니 여신들이 지녔던 생명력에 있기 때문이다.

신화 속에서 신성 표상을 지니던 여신의 성기 및 배설물은 탈신화화의 과정에서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 그럼에도 이 설화는 신성 표상으로서의 여성 성기와 월경의 이미지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단편적이기는 하나 각편에 따라 신화적 모티프의 편린(片鱗)들도 발견되는데, 호경설화에 나타나는 범상치 않은 인물로서의 ‘선택된 자’<sup>36)</sup>의 모티프가 나타나는가 하면 빨래하다 호랑이를 쫓는 빨래하는 여신들과 같은 계보에 있는 여성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호랑이 입보다 더 큰 것’, ‘입이 이-만한’ 등 여성의 성기 크기에 대한 표현들은 거근을 지닌 여신과 관련하여 신화의 흔적을 보여준다.

## 2) 여성영웅 서사와 대비

제의학파의 관점에서 볼 때, 신화는 제의 연행 속에서 담론화된 텍스트이며 신화 서사 속 신적 인물의 행위와 관련한 사건들은 제의적 사건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관점을 수용하면 건국신화와 무속신화는 제의라는 특정 연행 맥락에서 전승된 것이며<sup>37)</sup> 서사 속 신적 인물의 탄생이나

36) 호경 설화에는 호랑이에 희생될 자를 정하기 위해 사람들이 관을 던지고 호랑이가 호경의 관을 선택하는 대목이 나온다. 이 설화의 경우, 여러 명의 여성이 산에 가서 호랑이를 만나는 각편들에서 앞치마를 던져 호랑이로 하여금 희생자를 가리도록 하는데 호랑이에 선택된 자가 비범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37) 건국신화와 무속신화가 동일한 체계 속에서 파생된 것이라 주장한 논의는 많다. 대표적 논자로 김열규와 서대석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은 무속제의와 무속 신화

과업완수는 신적 인물의 통과의례로서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 설화의, 호랑이 퇴치의 과업을 행하는 여성의 서사는 신화 속 영웅적 인물의 통과의례 과정과 유사성을 지닌다. 호랑이 퇴치는 여성에게 주어진 중요한 임무로서 전형적인 가입자의 시련이며, 그 과제 중 혼한 괴물퇴치 모티프가 여기서는 호랑이 퇴치로 대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영웅이 치르는 신화적 모험의 표준궤도는 통과의례에 나타난 양식, 즉 분리, 입문, 회귀의 확대판으로 이는 원질신화(原質神化)의 핵 단위이다.<sup>38)</sup> 여성이 홀로 산으로 들어감으로써 그녀의 통과의례가 시작되며 주어진 과제 해결을 통해 평범한 여성에서 영웅으로 존재론적 변화를 꾀하게 된다. 이때 산은 인간질서가 지배하는 집, 마을과 대비되는 바깥 세계, 즉 인간질서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계 너머의 세계로 성스러운 에너지가 충만한 세계이다. 특히 한국의 고대적 신화와 의례에서 산은 모성적 장소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풍요와 다산의 원형적 여성성을 함축한 공간이다.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 모성, 모태로의 회귀는 필수적이다. 나체로의 변신은 분화되기 이전의 카오스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성스러운 세계로의 접속을 뜻한다.<sup>39)</sup> 또한 나체가 됨은 문명 또는 사회적인 것들을 상징하는 옷을 벗는 행위로서 이전 존재의 새로운 존재로의 이행을 나타내며, 아울러 신 또는 만물과 소통하기 위한 제의적 동기에 서 원초의 여성성을 간직한 신비로운 몸으로 돌아감을 의미한다.<sup>40)</sup> 여

의 관련을 통해 건국신화도 동일한 제의 맥락에서 연행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김열규, 『한국신화와 무속연구』, 일조각, 1977. 서대석, 『한국무가의 연구』, 문학사상사, 1980.

38) 조셉 캠벨, 이윤기 옮김,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민음사, 2018, 42-43쪽.

39) 의례나 신화를 통해 표상되는 혼돈으로의 회귀는 질서화되기 이전의 상태로 복귀, 즉 성적(聖的) 에너지의 회복과 성적 영역으로의 재접속을 상징한다. 이는 모두 일시적인 것으로 질서화를 위한 전 단계이다.

40) 수치심과 나약함을 기입하기 이전 나체는 마법적 힘의 상징으로 여겼다. 나체와 관련된 농경 주술이나 일부 초기 종교의 우상들이 빌렌도르프와 몰타의 비너스 처럼 나체 여성의 모습이었음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필립 카콤, 정주연 옮김, 『나체의 역사』, 학교재, 2012 참조.

성은 거꾸로 서거나 뒤로 기어서 호랑이를 퇴치하는데, 이때 그녀는 역(逆)의 원리에 의해 주력(呪力)을 발휘하는 존재<sup>41)</sup>, 성기에 내재한 충만한 생명력으로 벽사의 권능을 발휘하는 여신적 존재로 성화(聖化)된다. 호랑이가 퇴치됨으로써 신비한 능력은 증명된다. 각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호랑이 퇴치 후 사회로 복귀한 여성은 가족과 마을 사람들, 또는 국가로부터 큰 상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이후 산에 갈 때 여성을 꼭 대동하게 되었다는 등의 결말부는 여성의 능력에 대한 사회적 승인은 물론 호랑이 퇴치 영웅으로 존재론적 위상이 변화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이 여성의 통과(通過)의 과정에는 타인과 사회구원을 위한 여성의 자기희생적 면모가 짙게 배어 있다. 캠벨(J.Campbell)은 더 높은 가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인물을 진정한 영웅이라 하였는데<sup>42)</sup> 캠벨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여성은 진정한 영웅이라 할 만하다. 유화들에 나타나는 여성들은 호환 해결을 위해 자발적으로 산에 오르거나, 가정사로<sup>43)</sup> 인해 호랑이가 나타나는 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다. 가정사로 산을 오르는 경우에도 호랑이가 나타날 것을 알면서 주어진 일을 해결하기 위해 산으로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문제는 어느 경우든 서사 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할 남성들이 부재하거나 남성들의 힘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이다. 남성 가족구성원과 함께 일을 해결하려 한다거나 동네 남성들이 힘을 모아 호랑이를 잡으려 노력했다는 식의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문면에 나타나지 않거나 여성의 뒤에 숨거나 처녀공회를 통해 호환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을 뿐이다.<sup>44)</sup> 이는 곧 남성성 상실로

41) 기우제에서 디딜방아를 거꾸로 세운다든가 금줄을 왼새끼로 꼬는 것, 밀양 백중 놀이에서 샷갯을 뒤집어쓰고 소를 거꾸로 타서 산신을 나타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42) 조셉 캠벨, 이윤기 옮김, 『신화의 힘』, 이끌리오, 2002, 229쪽.

43) 가정사는 시부모 및 부모의 상(喪), 제사, 병구완, 남편 원수 갚기, 일상의 노동(나물 캐기, 장보기 등) 등이다. 가정사 해결의 경우, 가정의 일이 주로 효와 부덕(婦德)이라는 유교사회의 윤리적 가치와 관련됨으로써 여성의 희생은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강화를 위한 영웅적 행위가 된다.

인한 남성중심 사회의 위기를 뜻하며 기존 사회가 치유와 갱신이 필요한 상황임을 나타낸다. 여성은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딸로서, 며느리로서 가정과 공동체 수호를 위해 죽음을 불사하고 자신이 지닌 생명력(여성성)으로 남성중심 사회의 재생을 꾀한다.

이러한 희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여성 영웅은 우리 신화 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바로 바리데기와 당금애기, 유화, 응녀 등 한국의 여신들이다. 신화 속 여신들의 행적과 여정은 희생을 기반으로 하는 통과 의례로서 여신들은 한 사회의 결핍된 요소, 또는 신생의 필요가 있는 문제적 요소들의 충족을 위해 묵묵히 희생의 길을 선택한다.<sup>45)</sup> 이를 테면 바리데기는 아버지를 살릴 생명수와 존망이 위태로운 나라를 구하기 위해 지옥여행길에 오르고, 당금애기와 유화는 불안정하고 미숙한 사회 갱신을 위해 남성들(아버지, 남편 등)의 박해와 폭력을 견뎌내며, 응녀는 고조선의 영속성 보장을 위해 백일 동안 희생제의를 치른다.

사회적 결핍 또는 위기 상황들은 여신들에 내재해 있는 능력, 즉 여성 원리로서의 생산성과 풍요성을 통해 극복된다. 무장승의 아내가 되어 고된 가사일을 함은 물론 일곱 형제를 출산한 바리데기, 홀로 삼형제를 출산하여 아버지를 찾도록 한 당금애기, 주몽을 낳아 지혜로써 건국을 돕는 유화, 쭉과 마늘을 먹으며 햇빛 금기를 지켜낸 응녀. 여신들의 희생적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성으로서의 내적 자질은 시련에 맞서는 능력으

44) 자력형 여성담에 등장하는 남성들은 모두 호랑이를 퇴치하는 여성의 뒤로 숨어버리고, 자력형 여성담의 구조를 반복하는 모방형에서는 남성이 여성에게 호랑이 퇴치법을 물어 그대로 실행하지만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고 만다. 자료26은 공회 화소가 추가되어 나타나는 각편으로 희생제물인 처녀가 월경상태임을 보여 호랑이를 퇴치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45) 국조신화의 주인공이 남성이고, 무속신화의 주인공이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남성영웅은 주로 과업의 성취와 힘의 지배를 통해 역사를 이룩하는 역할을 하고 여성영웅은 풍요성과 생산력을 통해 삶과 죽음 및 구원의 문제에 간여하면서 초역사적인 과업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송효섭, 『설화의 기호학』, 민음사, 1999, 50-58쪽 참조.

로 발견되며 이는 곧 집단을 갱신시키고 풍요롭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여신들이야말로 자신을 타인에게, 더 높은 목적을 위해 내어준 ‘희생과 구원의 영웅’이다. <음란한 짓으로 맹수 놀라 도망가게 하기> 설화는 이러한 신화 속 여신들의 ‘희생적 영웅 서사’를 따르고 있으며 이 설화 속 여성이 신화 속 여신들처럼 자신이 지닌, 충만한 여성적 생명력으로 타인과 사회를 구원하는 여성 영웅의 면모를 지닌 데서 신화적 맥락을 짚어볼 수 있다. 물론 이 설화의 여성은 신화의 여주인공처럼 신격화되는 과정은 없다. 이는 신화와 비신화라는 장르적 차이에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 4. 가부장적 텍스트에 대한 여성주의적 읽기

신화와 의례에서 성스러움의 대상이었던 성(性)은 탈신성화 과정을 거치면서 수치스러운 것, 웃음거리 등으로 속화된다. 이를 반영하듯 설화를 전승하는, 지금-이곳에서 <음란한 짓으로 맹수 놀라 도망가게 하기> 설화는 성적 농담으로 연행되고 있으며, 가장 많은 편수를 차지하는 자력형-여성담은 남성 집단이 우스갯소리로 즐겨 연행하는 작품 중 하나이다.<sup>46)</sup> 이 설화는 남녀의 성관계나 성적 흥취를 표현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호랑이 퇴치를 위해 ‘알몸과 성기가 드러나는 것’에 주목함으로써 음담으로 간주되는 듯하다. 설화에 등장하는 호랑이를 성기로 퇴치하는 것이 핵심적 사건이기에 호랑이가 인간의 몸과 성기를 보고 도망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으로 인식하였는가에 대한 답을 탐색하기

46) 연행 맥락에서 나타나는, ‘쌍소리가 들어가는 상스러운 이야기’, ‘할아버지들이 모여 농으로 구술하는 이야기’, ‘야한 소리’, ‘우스갯소리’, ‘추잡한 이야기’ 등의 화자의 논평이나, 조사자를 의식하여 구술에 난색을 표하는 화자의 모습, 보수적인 청중에 의해 이야기가 중단되는 현상, 성기가 언급될 때 나타나는 왁자지껄한 웃음 등을 통해 향유자들이 이 설화를 음담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해 자연스레 인간의 몸과 성기로 시선을 돌리게 된다. 그리하여 인간의 몸과 성기에 대한 묘사가 불가피하며, 성차에 따라 성기를 다르게 인식하는 호랑이의 시각이 재미와 웃음을 주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연행목록에서 빠지지 않고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 설화를 가벼운 농(弄)으로 웃어넘기기에는 남녀 신체에 대한 차별적 담론이 전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 텍스트가 된다. 여러 각편들에서 호랑이 퇴치를 위해 남성과 여성 모두 성기를 드러내기 때문에 이것이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 성기를 중심으로 하여 반복해서 나타나는 젠더 이미지나 인물의 태도, 몸짓, 말, 사유, 운명 등 한 사람을 구성하는 모든 것은 성별을 축으로 차별적으로 기획되어 있다. 이는 이 설화가 가부장제 사회의 남성지배<sup>47)</sup> 이데올로기를 토대로 구성된 텍스트임을 반증하는 것으로서 남성적 관점에 따라 남성이 원하는 방식대로 구성된 서사는 전승과 연행을 통해 여성들을 불평등 속에 가두는 의미나 가치들을 생산하도록 한다.

차별적으로 구성되는 남/녀의 서사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요구하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각각의 정체성을 실천하는 과정, 즉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호명(interpellation)에 따른 응답으로서 남/녀 인물이 주체가 되는 과정을 시사한다.<sup>48)</sup> 주체화 과정에서 재현되는 남녀의 왜곡된 이미지나 호랑이를 초점화하여 전개되는 서사방식은 가부장적 텍스트로서 이 설화가 지향하는 의미를 도출하기 위한 주요 서사 전략이다. 이러한 서사 전략은 남성 중심 질서 유지에 적합한 몸을 생산하려는 정치적

47) 여기서 남성지배는 남성 중심적 가치나 남성으로 표상되는 권력 질서가 보편화된 사회를 말한다. 부르디외는 “사회적 질서는 그 토대가 되는 남성지배를 시인하려 드는 마치 거대한 상징적 기계처럼 작용한다”고 지적하였다. 피에르 부르디외, 김용숙·주경미 옮김, 『남성지배』, 동문선, 1998, 21쪽.

48) 주체화 과정의 호명은 알튀세의 호명 이론과 푸코의 ‘생산적 권력’, ‘권력의 효과로서 구성되는 주체’라는 개념을 참조한 것이다.

전략과 맞물려 이분법적 젠더 위계를 자연화하고 여성 억압을 정당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이에 주목하면서 하위 유형의 서사를 견주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속 주체들이 구성되는 방식을 살펴보도록 한다.

### 1) 호명과 구별짓기

알튀세에 이데올로기적 호명에 따르면 사회적 주체는 호명에 응답하고 이데올로기에 복종함으로써 구성되는 것이다.<sup>49)</sup> 사회적 주체라는 명명(命名)은 이미 이데올로기에 의해 역할이 정해져 있음을 내포하고 있으며 주체는 호명을 통해 자신이 부여받은 정체성에 따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이 같은 주체가 되는 과정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요구하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특정 젠더로의 호명에 답하고 순응하는 과정으로서, 주체는 '종속화<sup>50)</sup>'됨으로써 이데올로기 속으로 포섭되어 사회문화적 기대욕망들을 실천하게 된다. 물론 이때 호명된 주체의 획득과 실천적 행동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에 의해 강제된 행위의 결과이며 여기에는 암묵적으로 지배와 복종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어 있다. 사회적 생존을 위해 이데올로기의 호명은 거부할 수 없고 호명의 메커니즘으로부터 이탈한 자에게는 체제로부터의 소외라는 징벌이 부과된다.<sup>51)</sup>

호명 개념을 전유하여 이 설화를 '주체화'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각 각편들에 나타나는 남/녀 주인공들은 가부장제가 요구하는 젠더 정체성을 수행함으로써 주체가 되는 인물들이다. 주지하다시피 가부장제 사회는 생물학적 성(페니스의 유무)을 토대로 성기의 상징성으로 규정되는 젠

49) 루이 알튀세, 이진수 옮김, 『레닌과 철학』, 백의, 1991 참조.

50) 알튀세는 이러한 호명과 인지의 과정, 정체성의 형성의 과정을, 개체가 주체(subject)로서 구성되는 것은 보다 큰 대주체(Subject) 혹은 대타자(Other)에 종속(subject)되는 것이라고 표현한다.

51) 권유리야, 『이데올로기의 호명과 소외에 대한 주체의 변모양상 연구』, 『국어국문학』147, 국어국문학회, 2007, 414쪽.

더, 곧 남성성과 여성성이 있다고 믿고 이를 강요해왔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요구하는 젠더 규범—이상적 이분법 형태론, 몸의 이성애적 상보성, 적합하고 부적합한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이상과 규칙, 이중잡혼에 반대하는 순수성과 금기의 인종적 코드로 강조되는 많은 것들<sup>52)</sup>—에 순응하고 복종할 때 비로소 주체로 승인받을 수 있다.

지속지향이 강한 내용을 중심으로<sup>53)</sup> 남/녀 주인공의 서사를 대조해 보면, 호랑이를 기만하는 방식이나 인물의 말, 성기 표상 등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호명에 의해 지시되는 젠더와 관련하여 구현되어 있다. 호랑이를 기만하는 방식에서, 남성 주인공의 대부분이 받기된 성기를 내보이며 총이라 말로 위협한다면 여성 주인공은 말없이 성기를 노출하고 옆드려 뒤로 기는 자세를 취하여 호랑이를 속이고자 한다. 남성의 방식이 성기를 무기화하여 위협하는 능동적, 공격적 성격을 지닌다면 여성의 방식은 자신의 신체를 정체불명의 대상으로 인상화하여 호랑이 스스로 공포의 대상으로 판단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남성에 비해 수동적, 방어적 성격을 갖는다. 또한 남성 성기가 문명을 상징하는 총과 대유를 형성함에 따라 힘, 권력, 공격성이 남성적인 것으로 규정되는 반면, 여성 성기는 짐승의 입으로 치환되는 것과 더불어 여성의 몸이 야만(자연)적 이미지를 갖는 짐승(괴물)<sup>54)</sup>으로 은유되면서 반(反)문명으로서의 자연, 육체, 열등, 수동, 비언어 등이 여성적인 것으로 규정된다. 남/녀 주인공들은 이와 같은 성기를 중심으로 의미화 된 표준적인 남성성/여성성에 복종함으로써 정체성을 갖는 한편 가부장제 사회체제에 적합한 주체로 승인

52) 주디스 버틀러, 『젠더트러블』, 문학동네, 2008, 67-68쪽.

53) 자력형, 협력형, 모방형은 남성 혹은 여성만이 등장하는 서사, 남성과 여성이 함께 등장하는 서사로 구성되어 있다. 대비를 위하여 남성의 서사와 여성의 서사로 나누어 지속지향이 강한 내용들로 고찰하였다.

54)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호랑이는 여성을 짐승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정체모를 기이한 대상으로 규정한다. 월경 중인 여성의 경우 다른 짐승을 잡아먹고 피를 흘리는 것으로 인식한다.



받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호랑이 상징성이다. 호랑이는 의식을 지닌 대자(對自)적 존재로 등장하여 시선의 주체로서 인간을 대상화한다. 서사 내에서 호랑이는 판단력을 지닌 적극적인 의식일 뿐 아니라 남/녀의 성기를 응시하는 존재로서 바라보는 위치에 있다. 이때 남/녀 인물들은 바라보이는 대상으로 호랑이의 시선 앞에서 꼼짝 못하고 판단을 기다리는 존재가 된다. 푸코에 의해 지적되었듯이 바라보는 행위와 바라보이는 상태 사이에는 지배와 종속의 관계, 즉 권력의 관계가 성립된다.<sup>55)</sup> 호랑이가 시선의 주체이며 호랑이의 판단에 따라 인간의 생사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은 호랑이가 권력을 지닌 존재로서 인간의 우위에 있음을 뜻한다.<sup>56)</sup>

응시의 결과로서 인물들은, 호랑이에게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규정된 ‘남성’과 ‘여성’의 모습으로 정체화되고 인지되는 경우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경우 잡아먹힌다. 이는 곧 이데올로기적 호명과 인지를 통해 개인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승인받는 과정으로<sup>57)</sup> 가부장적 사회에서 주체가 되는 과정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요구하는 젠더 규범에 순응하고 복종할 때 주체로 승인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호명 메커니즘에서 이탈하는 경우 주체의 사회적 생존은 불가능하다. 정리하면, 이 설화의 호랑이는 유교문화에 기초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표상이자 권력

55) 미셸 푸코, 박홍규 옮김, 『감시와 처벌』, 강원대학교출판부, 1994 참조.

56) 시선은 타자성이다. 타자의 시선 앞에서 얼어붙은 듯 꼼짝 못하게 된다는 것은 타인과 나 사이에 지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시선은 권력의 관계이다. 바라보는 주체가 대상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므로 주체는 대상에 대해 우세한 지위를 점한다. 박정자, 『시선은 권력이다』, 기파랑, 2008, 28-48쪽.

57) ‘이데올로기의 호명과 소외가 사회적 생존과 죽음을 결정 짓는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정체 확인을 통해 호랑이가 퇴치되고 주체가 살아남는 과정을 이데올로기의 호명과 인지 과정을 통해 사회적 주체로 거듭남의 알레고리로 파악한 것이다.

으로서 아버지의 법, 가부장적인 팔루스(phallus)이며 승인과 인준을 내리는 초월적 심급이다.<sup>58)</sup> 호명자로서 호랑이는 남성이라는 젠더를 우월하고 지배적인 기표로 인식하고 활용할 뿐 아니라 이러한 인식을 상징체계를 통해 자연화하면서 시스템으로 현실화하는 권력으로 작동한다.

종속적 주체들을 생산하는 호명은 되풀이해서 이루어지는 수행적인 작용이며 주체는 계속되는 새로운 호명들에 의해 정체성을 갖게 된다. 버틀러는 호명의 목적이 어떤 종속된 주체를 지시하고 확립시키는 것이며 주체의 사회적 윤곽을 시공간 내에서 생산하는 것이라 하였는데,<sup>59)</sup> 호랑이와 인물들에 의해 되풀이되는 ‘총’과 ‘짐승(괴물)’이라는 호명은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는 기표로 작용하며 ‘우월한 남성’과 ‘열등한 여성’이라는 차별적 정체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양자 간의 권력 구도를 설정하는 효과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총과 짐승’을 토대로 확장되는 남녀의 이원론적 체계는 우열 관계를 내재하는 가치들으로써 남성과 여성을 구별 짓고, 위계를 대칭으로 위장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은폐하려는 정치성을 갖는다.<sup>60)</sup>

권력의 상위주체로서 남성들은 성차의 특수성을 배제하고 스스로 초월적이고 보편적 존재가 되고자 한다. 이때 여성은 남성의 자기동일성의 경제를 위해 언제나 타자의 자리, 주변화된 자리에 머물게 된다.<sup>61)</sup> 그리하여 우월성을 지닌 남성들이 규범이자 보편적 진리가 되고, 여성은 남

58) 한국의 문화기호학적 관점에서 호랑이는 남권의 상징으로 절대적 힘과 권력의 속성을 지닌다. 김열규, 『한국의 문화코드 열다섯 가지』, 마루, 1997, 192쪽.

59) 조현준, 『주디스 버틀러, 젠더 트러블』, 커뮤니케이션 북스, 2016, 72-73쪽.

60) 푸코는 권력이 억압의 기제로서 뿐만 아니라 차이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지적하였는데, 이는 곧 이원 구조, 혹은 이원론적 담론 구도 자체가 하나를 다른 하나의 우위에 배치함으로써 나머지를 배제하거나 추락시키는 권력 효과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이 이원론은 젠더 차이에 기반한 차별적 인식을 정당화함으로써 남성지배를 옹호하는 권력 담론으로 기능할 수 있다. 미셸 푸코, 이정우 옮김, 『담론의 질서』, 새길, 1993 참조.

61) 임옥희, 『기괴함: 친숙한 그러나 낯선』, 『페미니즘과 정신분석』(여성문화이론연구소 정신분석세미나팀), 여이연, 2003, 151쪽.

성의 자기동일성을 보증하는 거울로서 권력을 쥔 남성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부여될 수 있는 빈 공간으로 작용한다. 이를 테면 비(非)-남성적인 것으로서 남성의 바깥으로 내쳐진 부정적 자질들, 앞서 정리한 ‘자연(반문명)/수동/열등/비언어’ 등과 같은 가치들을 여성적 자질로서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이 설화에서뿐 아니라 여성은 남성들에 의해 오랫동안 자연의 괴물로 규정되어 왔는데, 이는 페니스 없음을 이유로 여성을 불완전한 남성으로 여겼기 때문이다.<sup>62)</sup> 남성이 존재의 표준형이자 규범이므로 여성은 그 규정성 너머에서 동일성을 교란시키는 존재로서 정체불명의 괴물과 같은 공포와 혐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여성을 남성의 결핍형, 미달형으로 전제하는 위계적 존재론은 언제나 남성을 우월한 존재로,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호명한다. 이렇듯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한 권력의 주체들은 호명을 통해 남성과 여성을 위계적 이원 구조에 종속시킴으로써 여성에 대한 남성지배를 자연화하는 사회를 유지해 나간다. 호명되어지는 개인들은 권력 지시하는 젠더 규범에 복종하면서 남성은 표준 남성에 가까워지는 노력을 통해, 여성은 자기부정과 혐오의 옷을 입고 남성을 위해 복무함으로써 사회적 주체가 된다.

## 2) ‘남성’주체화와 여성혐오

주체화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은 각각의 젠더 경계가 지시하는 표준과 정상에 대한 규범 담론에 순응하고 종속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때 남성의 주체화는 규범담론이 지시하는 비-남성(여성적인 것)에 해당하는 것들을 배제하고 남성이 따라야 할 ‘표준 남성의 규범’을 수행함으로써 가능해진다. 가부장제 사회의 ‘표준 남성의 규범’이란 가장으로서의 책무, 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사명감, 경쟁에서의 승리, 성적 대상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완벽한 통제와 지배, 부모봉양 등의 과업을 성취하는 것이다.<sup>63)</sup>

62) 홍성욱, 『크로스 사이언스』, 21세기북스, 2019, 85-86쪽.

자력형-여성담<sup>64</sup>)에 등장하는 남성들은 위의 과업을 성취하지 못한, 표준 남성에 미달하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호랑이에 대한 두려움으로 여성의 뒤에 숨어 여성이 호랑이를 퇴치하기만을 기다린다. 질서화의 주체 여야 할 남성 대신 여성이 질서화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성적(性的) 관계의 역전으로 남성성의 결핍을 뜻할 뿐 아니라 가부장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 된다. 남성성은 여성을 완전히 지배하고 통제하는 역량이며 남성 권력은 이것의 실현으로 유지될 수 있다. 이에 서사는 여성의 성적 우월성을 부정하기 위한 방식으로 여성의 몸에 혐오를 기입하고, 여성을 도구화하는 결말을 통해 남성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사람 같지도 않고 이상해서 밑으로 와서 보니까 밑에도 입이 있고..  
 밑에서 쳐다보니까 벌렁벌렁..  
 뭘 짐승이든 입이 치제진 기 쉬엄이 엉큼한 기..  
 무슨 놈의 짐승이 주렁이가 앞뒤로 있는 것도 같고..  
 사람 입은 옆으로 찢어졌는데 저것은 입이 내리 찢어진 것이 참말로  
 이상하다..  
 뭘 구녕이 저런 구녕이...왜 구녕이(구멍이) 뭐, 왜 구녕이 호랭이 잡  
 을 입이야.  
 입이 치 찢지고 피가 빨건게 수염이 나가주고 검시리 한테..  
 뿔이 버열경고, 기구한 기 고만 입을 찢억 벌리고 ...또 터리가 우우  
 막 나가 있고..  
 짐승도 아이고 사람도 아이고..  
 코로 냄새를 맡아보구 입으루 그 이상한 증성에 입을 활아봤다..  
 저 짐승은 시염도 나갔고 있는디 뿔을 잡아먹어서 피가 요렇게 낳는  
 고..  
 입도 이만하고 너불너불한..

63) 김영희, 『한국구술서사와 ‘여성혐오’』,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36, 한국고전여성  
 문학회, 2018, 96쪽.

64) 자력형-여성담 중 남성이 함께 등장하는 각편들을 토대로 분석한 것이다. 남성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남성들이 부재함으로써 위기 상황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  
 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표준에 미달하는 불안을 내재한 남성을 가정할 수 있다.

입이 우찌 저리 크노...

서사 내 기능을 따져볼 때 남녀의 성기는 안정과 질서를 불러오는 긍정적 힘을 지닌 것이다. 남녀의 행위가 동일한 기능을 지니고 있음에도 호랑이는 여성의 서사에서만 위의 혐오의 말을 쏟아낸다. 호랑이가 여성 성기에 부여하는, ‘더러운, 괴이한, 희한한, 냄새나는’과 같은 수식어를 안고 있는 입과 구멍의 이미지는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가능성에 노이즈를 생산한다. 호명이 호명되는 이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호명됨과 동시에 주체가 정체성을 획득하게 된다는 점을 상기하면 호랑이의 말에는 여성의 성적 능력을 부정하고 배제하기 위한 ‘여성혐오(misogyny)’ 전략이 은폐되어 있다. 너스바움(M.Nussbaum)은 혐오가 특정 집단을 불결하고, 냄새나고, 끈적거리는 동물적인 것으로서 열등하고 배제되어야 하는 ‘오염원’이라고 여기는 것이라고 했는데<sup>65)</sup>, 이 설화에 나타나는 여성 성기(월경)에 대한 혐오표현에 꼭 들어맞는 설명이다.

호랑이가 여성에 대해 혐오와 공포를 느끼는 이유는 여성 성기를 정체 모를 짐승의 입과 구멍으로 인식하여, 자신을 잡아먹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다. 여성 성기와 입술이 서로 은유함을 고려할 때<sup>66)</sup> 호랑이의 공포는 곧 여성 성기에 대한 남성의 거세공포를 환기한다. 여기서의 거세공포는 상징계<sup>67)</sup>로 진입하기 위해 ‘아버지의 법’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몸과 맺는 남성의 두려움을 뜻한다. 여성의 질, 즉 보이지 않는 구멍 속에 이빨이나 가위손이 있어 남성 성기를 집어넣는 순간 잘릴지 모

65) 마사 너스바움, 조계원 옮김, 『혐오와 수치심』, 민음사, 2015, 200-214쪽.

66) 입과 성기는 여성의 신체 위아래에서 있으면서 유사한 속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은유적으로 읽을 수 있다. 위의 입술이 구순(口脣)이라면 아래의 구순이 곧 음순(陰脣)이다. 입술의 순은 음순의 순과 같은 순이고, 신체지형상 안과 바깥의 통로라는 것, 기능상 삼키고 빨는다는 것, 형질 상 점액질의 보관소라는 것 등에서 공통요소를 지니고 있다. 김열규, 앞의 책, 1997, 233쪽.

67) 라캉이 사용한 용어로 문화의 체계와 가치규범, 언어 질서의 장으로 기능하는 아버지의 법질서이다.

른다는 두려움이 거세공포이다.<sup>68)</sup> 더하여 월경이 가지는 피의 이미지는 여성 성기에 먹히거나 거세당할 것이라는 공포를 더욱 강화한다.

호랑이가 남권을 상징하고 남성의 대표성을 갖는다고 볼 때 여성 성기에 대한 호랑이의 공포는 남성의 거세 공포와 알레고리로 이해할 수 있다. 끈적거리는 구멍, 피 묻은 입술로 환치되는 여성의 성기는 영원불멸을 꿈꾸는 남성에게 자기소멸(죽음)의 공포를 갖도록 하기에 혐오스러운 것이 된다. 게다가 월경이 지나는 점액성은 동물에 가까운 여성적인 속성이며, 이것은 불쾌하게 달라붙고 스며들기 때문에, 청결하고 초월적인 남성 주체의 자기동일성을 허물고 오염시킨다는 것이다.<sup>69)</sup> 즉 구멍에 대한 혐오는 남성의 자기 소멸의 공포가 뒤집혀서 표출된 것이다. 남성주체의 불멸성, 초월성, 고유성을 유지하기 위해 타자성을 억압하는 것, 그것이 가부장적 사회를 유지하는 젠더의 정치경제다.<sup>70)</sup>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여성담은 ‘남성’의 과업을 성취하지 못한 남성들의 나약함과 거세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자기동일적 정체성 훼손에 대한 공포, 지배와 정복의 대상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경계심—에 대한 심리적 방어를 위해 (호랑이의 입을 통해) 혐오표현으로써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재의미화하고 있다.

68) 이와 관련하여 거세하는 여성 성기에 대한 남성들의 두려움은 다양한 문화의 신화와 전설에 팽배해 있다. 바바라 크리드, 손희정 옮김, 『여성괴물』, 여이연, 2008, 202-213쪽.

69) 여러 사상가와 이론가들은 비체를 여성성으로 규정하였다. 사르트르는 『존재와 무』에서 점액질 분석을 통해 끈적거리고 미끈거리는 점액질 자체가 혐오감을 준다고 하였으며 이를 여성적 것으로 보았다. 크리스테바는 점액질의 성질을 지닌 것들을 비체(Abject)라 명명하고 콧물, 침, 오줌과 땀, 월경 등 신체 분비물을 예로 들었다. 비체는 동일성이나 체계를 교란시키기 때문에 공포와 혐오의 대상이자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의 동일성과 안정성,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배제되어하는 비체로 간주된다.

70) 윤보라 외, 『여성혐오가 어쨌다구?』, 임옥희, 『주체, 호러, 재미법화』, 현실문화, 2015, 66-70쪽.

뿐만 아니라 여성을 길들이고 통제하는 형태의 결말은 남성과 남성적 가치에 복종하는 순종적인 몸을 만든다. 호랑이 퇴치 후 여성들은 가부장제의 집단 의식을 함축하고 있는 이들(시부모, 오빠, 남성 무리, 국가 등)에게 칭찬/돈/상을 받거나 남성들이 산에 갈 때마다 호랑이를 퇴치해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기도 한다. 여성의 지혜와 능력은 남성을 위기에서 구할 때, 남성 중심 질서 유지를 보장하는 것일 때 옹호 받을 수 있다. 보상은 규범을 내면화하도록 함으로써, 임무는 물화(物化)를 통해 여성 억압과 종속을 자연화한다. 안타깝게도 가족과 사회를 위해 호랑이 앞에 섰던 여성의 내면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이러한 결말은 남성이 성적 주체이고 여성이 성적 객체라는 위계적 관계를 재확인시켜 줄 뿐이다.

협력형의 남성 또한 표준 남성에 미달하는 존재이다. 협력형의 호랑이는 1차-남성, 2차-여성에 의한 두 차례의 기만을 통해 퇴치되는데 여성은 호랑이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총에 맞은 상처(구멍)라 속여 퇴치한다. 여성에 의해 호랑이가 완전히 퇴치되므로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한 성적 능력을 지닌 셈이다. 하지만 여성 성기와 월경은 곧 여성의 말에 의해 총에 맞은 상처인 구멍/피로 혐오와 공포를 유발하는 부정적 이미지로 환치된다.

총과 총에 맞은 상처가 만들어내는 관계는 ‘총 쏘는 자와 총 맞는 자, 강자와 약자, 삼입하는 자와 삼입 당하는 자, 씨를 뿌리는 자와 씨를 받아 기르는 자, 지배와 정복, 능동과 피동 등’의 대립 체계와 은유적 유대를 맺으면서 여성의 몸을 이분법적 위계구조 아래로 포박시킨다. 이러한 관계구조는 남성의 능동성과 주도성, 그리고 여성의 몸에 대한 지배권과 통제권이 오로지 남성에게 있음을 함축한다. 협력형의 여성은 스스로 자신의 성기에 부정적 이미지를 기입함으로써 불완전한 남성이 ‘강한 남성’이라는 긍정적인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타자 역할을 수행한다. 즉 팔루스 되기(being the phallus), 남성을 위한(being for) 여성되기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는 여성인 것이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은 ‘젠더 주체’인 여성이 되기 위한 종속과 순응의 과정에서 자기 안의 여성적 측면에 대한 혐오를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특히 젠더 규범을 벗어나거나 젠더 규범에서 좌악시하는 ‘여성성’의 요소들은 극단적 배제의 대상이 된다. 협력형 여성의 여성 혐오발언은 여성의 자기부정과 자기혐오의 결과이다. 권력의 하부에 위치한 존재들이야말로 종속과 순응의 강도를 높게 수행했을 때 비로소 주체로 호명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sup>71)</sup>

이상의 서사들은 남성의 주체되기가 여성을 객체화하고 타자화하는 과정에서 완성됨을 보여준다. 바꿔 말하면 ‘남성성’의 기술이나 남성의 정체성을 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여성혐오가 필연적으로 수반되고 있다는 것이다. 버틀러는 혐오 발언이 주체에게 막강한 힘을 가진 것으로 만들어주는 마법적인 힘이 있다고 말한다.<sup>72)</sup> 여성을 향한 호랑이의 혐오발언이나 남성화된 여성의 자기 혐오적 발언은 남성과 남성적인 것들의 확고부동한 지위를 드러내는 효과를 지닐 뿐 아니라 여성을 영원한 남성의 타자로서 희생자가 되게 한다. 즉 여성 혐오는 남성과 여성의 젠더 주체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력에 대한 순응을 내포하면서 남성에게는 남성 권력의 강화를 위해, 여성에게는 (자기부정과 자기혐오를 통해) 남성 체제 유지에 기여하도록 하는 여성 억압의 기제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 3) 표준/비표준의 경계짓기

어떤 궁극의 일자(the one)가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남성 중심 이데올로기의 특징이다.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우월성을 지닌 남성들이 규범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남성의 관점이 보편적 관점이 된다. 규범은 남성들

71) 김영희, 앞의 논문, 131-132쪽.

72) 주디스 버틀러, 유민석 옮김, 『혐오발언』, 알렙, 2016, 26쪽.



이 만들어낸 여성성에 대한 규정들이나 남성이 여성에 대해 가지는 환상들을 영속화하고 그것들에 권위를 부여하여 남성적인 것을 ‘진리’인 것처럼 만든다.<sup>73)</sup>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에게 기대되는 것은 남성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가부장제 사회의 여성이 주체가 되기 위한 핵심이다. 여성이 수행해야 할 것은 남성, 가족, 국가를 위한 노동으로, 여성들은 남성중심 체제 유지에 필수적인 가부장적 규범들, 모성 이데올로기, 정절 이데올로기, 유교 이데올로기가 요구하는 규범들에 복무해야만 한다. 이 규범은 절대적이며, 이에 순종하는 여성만이 이상적 여성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의문시하거나 저항하는 여성은 공격과 처벌의 대상이 된다.

모방형에서는 착한 여성과 나쁜 여성, 여성(남성에 의해 승인된, 남성화된 여성)과 약한 남성의 구도를 통해 전자에 정상과 표준으로서의 권위를 부여하고 정상과 표준에서 벗어날 경우 호랑이에게 먹히는, 무서운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규범에 순종하는 인간을 만들고자 한다. 후자가 호랑이에게 먹힘은 곧 호명 메커니즘에서 이탈한 개인은 체제로부터 소외되어 사회적 주체로 살아갈 수 없음을 시사한다. 이때 호랑이의 시선은 자격을 부여하고 분류하고 처벌할 수 있는 감시이며 규격화하는 시선이다.

모방형의 경우, 효부-불효녀담과 여성-남성담으로 다시 나뉜다. 효부-불효녀담에서 유교 윤리의 핵심인 효<sup>74)</sup>를 수행한 여성이 상을 받고 위반한 불효녀가 호랑이에게 먹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불효녀는 효를 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여성으로 그려지는데, 이는 남성들에 의해 묘사되는 전형적인 혐오스러운 여성의 모습이다. 그

73) 팸 모리스, 강희원 옮김, 『문학과 페미니즘』, 문예출판사, 1997, 34쪽.

74) 유교-가부장제를 취하는 전통사회에서는 국가가 나서서 효를 강요하였다. 여기에는 유교 가치의 확립을 통해 지배 계층의 위치를 단단히 하려는 의도가 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철저한 수직적 관계를 당연시하는 윤리적 가치의 주입을 통해서 임금과 신하, 양반과 상민의 수직적 관계를 공고히 하려는 것이다. 이로써 효의 가치가 인간의 기본적 도리로서의 가치를 넘어 국가 통치와 유지를 위한 수단이었다.

러기에 불효녀의 정체성은 부정당하며 그녀의 성기는 호랑이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sup>75)</sup>

앞서 살펴보았듯이 남성들은 여성 혐오를 통해 자신들의 긍정적 정체성을 구현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존재로서 여성성을 규정한다. 그것이 만들어내는, 선녀(善女)와 악녀, 성녀와 창녀, 효녀와 불효녀 등의 경계는 여성들로 하여금 전자의 항에 들어가기 위해 자기 단속에 존재적 에너지가 소진되도록 한다. 이는 어느 쪽이든 여성 억압의 두 가지 형태로서 여성을 남성이 규정한 젠더 경계 안에 머무르도록 할 뿐 아니라 여성들끼리도 여성을 혐오하도록 하여 여성들 간의 연대 또한 불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여성-남성담의 경우도 대체로 효의 수행이 과업으로 주어지고 여성은 자력형의 여성과 같은 방식으로 호랑이로부터 살아남는다. 하지만 남성은 여성에게 호랑이 퇴치방법을 묻는 무지한 인물이거나 성적 에너지가 부족한 인물로 주어진 과업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존재로 나타난다. 텍스트 내 남성의 성기는 지쳐서 늘어뜨린 혀로 이미지화된다. 자력형-남성담의 남성들이 받기된 성기(총)를 슬쩍 내보이고/휘두르고 호랑이를 성공적으로 퇴치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호랑이는 성기에 힘이 없어 보여 남성을 잡아먹은 것으로 표현되는데 이는 곧 받기한 성기가 강한 남성의 지표임을 뜻한다.<sup>76)</sup>

75) 대부분의 사회적 호명은 권력의 상위주체에게서 권력의 하위 주체에게로 전달된다. 호명을 통한 정체성의 획득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 타자에 의해 강요된 것이라 하더라도 권력의 하위 주체는 그것을 거부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 만약 그들이 그것을 거부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 이때 처벌의 폭력 행위는 공공의 선과 집단적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은폐된다. 유진아, 『여성 호명의 젠더적 함의와 여성 폭력』, 『한국문학이론과비평』 제25-1집 통권 90호,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21, 295-318쪽.

76) 캐논으로 전해오는 이상적인 조각상들을 보면 남신이나 영웅들은 별거벗은 근육질의 모습으로 남근을 드러내며 남근을 상징하는 무기들을 들고 있다. 남근 통치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남근이 공격적 무기라는 것이며 그것은 항상 발기해있는 것이어야 하고 자존적, 자기 충족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봉률, 『남

남성의 성기는 남성에게 젠더적 남성의 지위를 보장하고, 남성의 젠더적 습속을 형성하게 하며, 남성 지배를 정당화해 주는 남근 중심주의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표준 남성’은 남성에게 부여된 가부장적 윤리를 수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여성을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는 강자성을 지닌 자라야 한다.<sup>77)</sup> 약자성을 지닌 남성은 표준과 정상에서 벗어난 ‘비규범적 남성=비남성=여성’으로서 여성과 마찬가지로 비가시적이고 부차적인 존재가 된다.<sup>78)</sup> 모방담의 남성이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것은 약자성을 지닌 데 대한 처벌이다. 가부장 사회에서 약자성은 의존성, 열등성과 더불어 여성의 자질로 간주되기 때문에 약한 남성은 용납될 수 없다. 여성-남성담은 남성이 호랑이에게 먹혀 죽게 됨으로써 강자로서의 남성이 유일한 남성성의 지표라는 인식 체계는 물론 표준 남성 되기를 강조하는 담론의 성격을 갖게 된다.

표준과 정상/비표준과 비정상의 경계를 나누어 보상과 처벌을 반복하는 것은 가부장적 사회질서가 남성과 여성을 통제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즉 표준과 비표준의 판본을 만들어내고 사회주체들을 배치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젠더 정치가 된다. 이는 곧 주체들에게 호명에 대한 응답으로서 규범적 남성/규범적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수행하도록 할 뿐 아니라 남녀의 성별이 곧 젠더이고, 젠더를 존재의 본질로 여기도록 한다. 이

근지배:고대 아테네문화와 자기파멸적 미학』, 『새한영어영문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5집, 새한영어영문학회, 2011, 123-138쪽.

77) 강자성이란 여성이라는 자원을 배분받는 자, 공격하고 삼입하는 자, 타격받지 않는 자, 소유하는 자, 보는 자, 폄평하는 자, 포식자로서의 자질을 말한다. 강자성에 대응하는 약자성은 공격(삼입) 대상이 되는 몸, 결핍(거세)의 몸, 포식대상이로서의 몸, 수치의 몸으로서 자기단속에 갇힌 몸이다. 윤지영, 『남성지배의 몸과 남근이데올로기의 문제 페니스 나르시시즘과 페니스 카르텔의 해체전략』, 『철학연구』 123집, 철학연구회, 2018, 145-162쪽.

78) 비남성으로서의 약자성을 갖는 이들로 성소수자, 트랜스 남성, 외국인 노동자, 장애 남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기존의 남성성의 규범에서 벗어나는 도전적 남성들로 간주되므로 가부장적 사회의 주류 남성에게 편입될 수 없다. 때문에 사회적 주체로서의 인정받기 힘들뿐 아니라 차별과 극단적 혐오의 대상이 된다.

러한 방식으로 강요된 젠더에는 남성 보편주의에 기반한 젠더불평등이라는 비대칭성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우월한 남성에 의한 여성 지배와 억압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만들고 경계 외부의 것들(가치, 존재)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효과를 지닌다.

## 5. 나가며

지금까지 <음란한 짓으로 맹수 놀라 도망가게 하기> 설화에 나타난 신화적 맥락과 가부장제 사회의 젠더 주체가 구성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민속학·인류학적 관점과 여성주의적 관점을 원용하여 살펴본 바를 간단히 정리하면, 전자의 관점에서 이 설화는 지략과 여신적 생명력으로 부정을 물리친 여성 영웅의 이야기가 되고 후자의 관점에서는 가부장적 사회의 남성과 여성이 젠더 주체가 되는 과정을 담은 이야기가 된다. 이 논문에서 시도한 두 관점에서의 읽기는 기존의 ‘어리석은 호랑이를 조롱하려는 의도에서 웃기려고 만든 이야기’라는 해석에서 나아가 그 지평을 넓힌 데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가면서 두 가지 문제를 제시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 번째 문제는 연행의 층위에서, 이 설화를 음담, 우스갯소리로 즐기면서 설화에 전제되어 있는 젠더 관념이나 여성 혐오의 논리를 자연화한다는 것이다. 실제 연행에서 호랑이의 말과 생각이 나타나는 부분은 가장 웃음이 터져 나오는 대목이다. 음담으로서 이 설화의 웃음 포인트는 호랑이의 어리석음에 있기보다 성기의 메타포로 제시되는 표상물들이 주는 이미지에 있다. 그리하여 성기와 은유적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들로 초점화되고 호랑이와 동일시를 통해 성기가 환기하는 이미지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웃음이 발생한다. 호랑이와 인물들에 의해 재현되는 이미지들은 남녀의 신체와 정체성을 함축하는 관습적 표상들로서 생물학

적 본질론과 성차별, 남성 보편주의를 전제로 구성된 것이다. 가벼운 웃음거리로서의 연행은 이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방해하고 연행자를 이분법적 젠더 규범과 가부장적 질서에 기초한 젠더 정체성의 내용을 스스로 기입하고 수행하는 주체로 만드는 작용을 한다. 이는 곧 여성 차별과 혐오 논리로서 남성지배를 정당화하려는 가부장적 의지에 자발적으로 동화하는 일이 된다.

두 번째는 ‘음란한 짓으로 맹수 놀라 도망가게 하기’라는 유형명에 대한 문제이다. 서사 내용을 고려할 때,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호랑이 앞에 성기를 노출한 것이 과연 음란한 짓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여러 사전을 참조한 결과 ‘음란한 짓’이란 ①함부로 성욕을 자극 또는 흥분시키는 음탕하고 난잡한 행위, ②다른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③부부의 성관계 외의 모든 성적 행위 정도로 정리된다. 자신의 성적 흥취와 타인의 성적 수치심 유발을 위해 성기를 노출한 것이 아니므로 ①과 ②는 제외되고 ③의 정의대로라면 음란한 짓으로 규정할 수 있을 듯하다. 하지만 ③의 ‘음란한 짓’이 대체로 부정적 행위로 인식되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데 반해 여기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행위로서 지혜, 지략으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음란한 짓으로 보기 힘들다. 음란함에 대한 기준은 사회, 풍속, 종교, 윤리 등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지만 이 유형명을 그대로 쓰기 위해서는 음란함의 개념에 대한 재고가 필요해 보인다.

## 참고문헌

### 기본 자료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1980-1983.  
한국구비문학대계DB <https://gubi.aks.ac.kr/web/Default.asp>, 2009-2018.  
김선풍 외, 『평창군의 설화』, 국학자료원. 2002.  
박경수·황경숙 편저, 『동부산 문화권 설화』(Ⅱ) - 남구, 수영구, 해운  
대구 편,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13.  
신동훈 외, 『도시전승 설화자료 집성』 9, 민속원. 2009.  
이가원, 『조선희랑이 이야기』, 학민사. 1993.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평안북도편 2, 평민사. 1988.  
조희웅, 『영남구전자료집』 2 - 경남 산청군, 박이정. 2003.  
황성문화원, 『황성의 구비문학』 I, 2002.

### 논문 및 단행본

- 강진옥, 『마고할미설화에 나타난 여성신 관념』, 『한국민속학』 Vol.25  
No.1, 한국민속학회, 1993, 3-47쪽.  
구사회, 『신라의 성기숭배와 지증왕의 음경』, 『서강인문논총』 No.46, 서  
강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6, 109-131쪽.  
권유리아, 『이데올로기의 호명과 소외에 대한 주체의 변모양상 연구』, 『국  
어국문학』 No.147, 국어국문학회, 2007, 413-440쪽.  
권태효, 『표모형 설화의 신화적 성격 연구』, 『인문논총』 Vol.6, 경기대 인  
문대학, 1998, 61-82쪽.  
\_\_\_\_\_, 『한국의 거인 설화』, 역락, 2002.  
김명숙, 『첨성대, 여신 상이자 신전』, 『한국여성학』 Vol.32 No.3, 한국여  
성학회, 2016, 139-187쪽.

- 김명희, 『설화 속에 나타난 호랑이와 여성』, 『동방학』 Vol.2,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1996, 143-178쪽.
- 김봉률, 『남근지배:고대 아테네문화와 자기과멸적 미학』, 『새한영어영문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No.5, 새한영어영문학회, 2011, 123-138쪽.
- 김열규, 『한국신화와 무속연구』, 일조각, 1977.
- \_\_\_\_\_, 『한국문학사』, 탐구당, 1992.
- \_\_\_\_\_, 『한국의 문화코드 열다섯 가지』, 마루, 1997.
- 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 1, 제주탐라문화연구소, 1985.
- 김영희, 『한국 구술서사와 ‘여성혐오’』,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No.36,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8, 85-137쪽.
- 김화경, 『한국의 설화』, 지식산업사, 2003.
- 루이 알튀세, 이진수 옮김, 『레닌과 철학』, 백의, 1991.
- 마사 너스바움, 조계원 옮김, 『혐오와 수치심』, 민음사, 2015.
- 미셸 푸코, 이정우 옮김, 『담론의 질서』, 새길, 1993.
- \_\_\_\_\_, 박홍규 옮김, 『감시와 처벌』, 강원대학교출판부, 1994.
- 바바라 크리드, 손희정 옮김, 『여성괴물』, 여이연, 2008.
- 박정자, 『시선은 권력이다』, 기과량, 2008.
- 박진태, 『전환기의 탈놀이 접근법』, 민속원, 2004.
- 배도식, 『한국 호설화 연구』, 동아대 박사논문, 1999.
- 블라디미르 프롭, 최애리역, 『민담의 역사적 기원』, 문학과지성사, 1990.
- 서대석, 『한국무가의 연구』, 문학사상사, 1980.
- 송효섭, 『설화의 기호학』, 민음사, 1999.
-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정신분석세미나팀, 『페미니즘과 정신분석』, 여이연, 2003.
- 유진아, 『여성 호명의 젠더적 함의와 여성 폭력』, 『한국문학이론과비평』 Vol.25 No.1,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21, 295-318쪽.

- 윤보라 외, 『여성혐오가 어쨌다구?』, 현실문화, 2015.
- 윤지영, 「남성지배의 몸과 남근이데올로기의 문제 페니스 나르시시즘과 페니스 카르텔의 해체 전략」, 『철학연구』 No.123, 철학연구회, 2018, 137-185쪽.
- 이난영, 『토우』, 대원사, 1991.
- 일연, 이재호 옮김, 『삼국유사』, 솔출판사, 1997.
- 임동권, 『월산 임동권박사 송수기념논문집:민속학편』, 집문당, 1986.
- 장덕순, 『한국설화문학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78.
- 장장식, 「성기신앙의 형태와 성격」, 『한국민속학』 Vol.27 No.1, 한국민속학회, 1995, 365-400쪽.
- 조셉 캠벨, 이윤기 옮김, 『신화의 힘』, 이끌리오, 2002.
- \_\_\_\_\_, 이윤기 옮김,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민음사, 2018.
- 조현준, 『주디스 버틀러, 젠더 트러블』, 커뮤니케이션 북스, 2016.
- 조희웅, 『한국설화의 유형적 연구』, 한국연구원, 1983.
- 주디스 버틀러, 조현준 옮김, 『젠더트러블』, 문학동네, 2008.
- \_\_\_\_\_, 유민석 옮김, 『혐오발언』, 알렘, 2016.
- 천혜숙, 「여성신화연구(1) - 대모신의 상징과 그 변용」, 『민속연구』 No.1, 안동대민속학연구소, 1991, 103-126쪽.
- 팜 모리스, 강희원 옮김, 『문학과 페미니즘』, 문예출판사, 1997.
- 피에르 부르디외, 김용숙·주경미 옮김, 『남성지배』, 동문선, 1998.
- 필립 카곰, 정주연 옮김, 『나체의 역사』, 학고재, 2012.
-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 『한국문화상징사전』, 동아출판사, 1992.
- 한국정신문화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 1991.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화대계-별책부록( I )한국설화유형분류집』, 2002.
- 허원기, 「한국 호랑이 이야기의 현황과 유형」, 『동화와번역』 Vol.5, 건국대학교 동화번역연구소, 2003, 85-104쪽.



허 춘, 『설화에 나타난 호랑이의 특성』, 『열상고전연구』 Vol.10, 열상고  
전연구회, 1997, 77-97쪽.

현택수, 『문화와 권력-부르디외 사회학의 이해』, 나남출판, 1998.

홍성욱, 『크로스 사이언스』, 21세기북스, 2019.

<Abstract>

The mythological character of and a  
feminism approach to the tiger Tale\*  
- Focusing on Type of 'Expelling Fierce Animals by  
Frightening them though Lecheries'

Lee, Hyeon-Ju\*\*

The type of 'Expelling Fierce Animals by Frightening them though Lecheries' is a tale with the plot in which an ordinary male or female deceives and expels a tiger by taking off his/her clothes and showing his/her sexual organs to it. This paper examines this type from the perspectives of folklore, anthropology and feminism. It investigated the mythical context appearing in the tales and analyzed how gender subjects are organized in the patriarchal society.

First, it analyzed the narrative structures by arranging the list of variants and categorized the types. Then, it sub-categorized the types into self-sufficiency, cooperation and imitation, by considering the arrangement of motifeme and the subjects expelling a tiger. The sub-type of self-sufficiency is again divided into male's and female's tales.

Second, it recognized that this tale was produced by reflecting a variety of mythological factors appearing in sexual organ worship,

---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20S1A5B5A17089940)

\*\*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nd creating, heroic and shaman myths, etc. and examined its characteristics shared by myths around characters' traits and the narrative structures. The female tales which has been most actively transmitted was examined to show that females who expel a tiger, the characters who can use tricks and metamorphic conjury, like mythological heroines, have goddesses' ability to regenerate homes/societies by using vitality with which their bodies (vagina) are filled. This study also regarded the process in which a female expels a tiger as the rite of passage (the entrance ritual) of heroic characters and also found that it shares the sacrificial character appearing in heroines' rite of passage, such as Baridegi and Danggeumaegi. Here, the tiger which destructs the existing order has a filthy meaning that should be subdued to reorganize the stable order.

Third, it focused on how the subject construction is achieved by this tale containing the patriarchy ideology by reviewing the subtypes of narratives. The male/female narratives discriminately constructed around sexual organs was initially premised on the proses in which males and females are subjectivized according to the naming of the patriarchy ideology. The tiger which intervenes in the subjectivization process of male/female was interpreted as the 'power' and 'patriarchy phallus' naming the subjec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male and female subjects in the patriarchy ideology were produced as the bodies suitable for maintaining the male-dominated system based on the framework(strategy) making boundaries between naming and distinction, between male and female subjects, and between standard and non-standard. Such a gendering method is problematic, in that it is based on a biological essential

theory, sexual discrimination and male-universalism. More serious problem is that this tale is enjoyed as an obscene and a joke, while the gender idea or the logic of misogyny, the premises of it are naturalized. Uncritical and unconscious speech and behavior can function as discourses justifying both female oppression and subordination and can be hegemony tools used for persisting the ideology of male domination. This is a key reason why this tale should be read from the feminist view. This paper is thought to have an implication, in that it extends the relevant data and tries a new reading, by including the type which has not attracted attention from academic circles as an object of research.

Key Words: sexuality, myth, Sacred, secularization, patriarchy, gender, subjectivation, phallus, misogyny, feminism

■ 논문접수 : 2021년 12월 07일

■ 심사완료 : 2021년 12월 23일

■ 게재확정 : 2021년 12월 24일